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실행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유 재 순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실행연구

권 경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유 재 순

인 준 서

유재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동산유치원 만 4세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활동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와 부모의 변화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실행 과정은 어떠한가?
2.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와 부모의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서울시 D구에 소재한 동산유치원 만 4세 방과후 과정인 꽃잎반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은 만 4세 방과후 과정반 유아 15명과 그들의 부모이다. 연구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며, 연구기간 동안 연구자는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에서 이루어진 가정연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는 참여관찰, 면담, 저널쓰기,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타 관련 문서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인 읽기를 통해 범주화하고 의미를 탐색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해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산유치원 만 4세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를 위해 1차와 2차 실행 과정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1차 실행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는 유치원에서만 보던 주제 그

림책을 가정으로도 보내어 가정에서도 그림책에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림책의 내용을 교육활동으로 제시한 가족 활동지를 가정에 배부하였다. 가정에서는 배부 받은 활동지를 하고 난 후 그 결과를 가족 활동지에 기록하고 활동사진을 붙여 유치원으로 다시 보내도록 하였다.

1차 실행에 대한 평가 결과, 꽃잎반은 대부분 맞벌이 가정으로 가정연계에 참여하는 데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였다. 또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배부된 가족 활동지는 부모에게 부담스러운 숙제로 느껴졌다. 가정으로 배부된 가족 활동지를 수행한 유아들과 그렇지 못한 유아들로 양분되면서 가족 활동지를 못한 유아들은 소외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또한 가정으로 소개되는 교육활동은 너무 정적이거나 단순한 활동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일수록 유아와 부모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1차 실행 결과의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2차 실행을 실시하였다.

2차 실행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는 종이로 배부되는 가족 활동지와 함께 SNS를 중심으로 유치원 홈페이지와 스마트 폰의 밴드를 통해 전개하였다. 연구자는 부족한 시간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스마트 폰의 앱을 이용하여 활동한 결과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SNS의 활용은 유치원에서 소개한 활동에 대해 관심 있는 가정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다른 가정에서 활동한 가정연계 결과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자극이 되었다.

또한 가정으로 배부되는 가족 활동지가 숙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놀이의 제안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유아에게도 각인시켜 주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보내온 활동 결과물은 자랑거리가 아닌 공유하는 자료로 소개해 주었다. SNS의 활용은 활동의 결과를 바로 올릴 수 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이고 실시간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2차 실행에 대한 평가 결과, SNS 중심의 가정연계는 활동 결과물에 대해 자유로워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유치

원과 가정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둘째,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실행 과정에 참여한 유아와 부모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유아는 유치원에서의 활동을 가정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활동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유치원으로 활동 결과물을 가지고 온 유아는 결과물에 대해 주도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정연계의 출발이 방과후 과정 꽃잎반에서 진행하던 그림책을 중심으로 실행하였기 때문에 유아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제 그림책 뿐 아니라 관련 그림책과 다양한 그림책에 가까워져 있었다. 가정에서 활동한 결과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자신과 자신이 가져온 활동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면, 연구가 진행되면서 유아들의 관심은 친구와 친구의 활동 결과물로 관심이 옮겨졌다.

다음으로 부모는 가정연계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를 막연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의 시선으로 내 아이가 어떤 교육과정에 어떤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일방적으로 전달을 받거나 또는 전달을 하던 부모가 유치원의 교사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책이 중심이 된 활동을 하고 활동에 대해 유치원과 대화하려고 하였다.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부모에서, 사랑과 동시에 교육적 차원에서 놀이방법을 알아가는 가정의 교사로 변화되었다. 유치원에 교사가 있다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사로서 비법만을 찾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닌 놀이방법을 제안하는 교사 같은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방과후 과정	8
1) 방과후 과정의 개념 및 운영	8
2) 방과후 과정의 교육계획과 교육활동	12
2. 그림책	14
1) 그림책의 특성 및 가치	14
2) 그림책의 교육적 활용	16
3. 가정연계	19
1) 가정연계의 개념과 중요성	19
2) 가정연계의 형태와 방법	22
III. 연구방법	26
1. 실행연구	26
2. 연구 현장 및 연구 참여자	27
1) 참여기관	27

2) 연구 참여자	29
3. 연구 절차	33
1) 준비 과정	34
2) 본 연구 과정	36
4. 자료 수집	45
1) 참여관찰	45
2) 면담	46
3) 저널 쓰기	48
4) 동영상 및 사진 촬영	48
5) 기타 관련 문서	49
5. 자료 분석	50
IV. 연구결과 및 해석	51
1.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 과정	51
1) 1차 실행: 가족 활동지를 중심으로 한 가정연계	51
2)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평가	63
3) 2차 실행: SNS를 중심으로 한 가정연계	76
4) 2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평가	88
2.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93
1) 유아의 변화	93
2) 부모의 변화	101
V. 논의 및 결론	109
1. 논의	109

1)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 과정	109
2)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113
2. 결론 및 제언	117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꽃잎반의 하루일과	29
<표 2> 꽃잎반 유아의 가족 구성원, 맞벌이 여부 및 부모교육 참여율	32
<표 3> 연구 일정 및 실행절차	33
<표 4> 방과후 과정반의 연간 교육계획안 중 생활주제별 그림책 목록	36
<표 5> 1차 실행 방안 중 가정연계 활동	38
<표 6> 1차 실행 시 배부된 가정연계 가족 활동지 목록	39
<표 7>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과정 중 배부된 가정연계 가족 활동지 목록	40
<표 8> 2차 실행 방안 중 가정연계 활동	41
<표 9> 2차 실행 시 배부된 가정연계 가족 활동지 목록	44

그림 목 차

[그림 1] 그림책 대어를 위한 안내문	55
[그림 2] 진시무 가족의 가족 활동지	61
[그림 3] 온라인상 소통의 창고가 된 밴드	80
[그림 4] 그림책 속 자음을 가족과 함께 몸으로 만든 사진과 댓글	81
[그림 5] 홈페이지에 달린 댓글	87
[그림 6] 가정의 다양한 재료와 물건으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87
[그림 7] 배부된 가족 활동지에 대한 가정의 피드백	90
[그림 8] 김하윤 가족의 미완성 그림책	92
[그림 9] 밴드에서 소통하는 꽃잎반 가족	92
[그림 10] 가정연계에 도움을 주신 엄마에게 쓴 편지글	9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와 도시화는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만들고 있으며 산업 구조의 변화는 여성 인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매년 변화하여 2005년 전체 여성 인구의 50.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였고 2010년 49.4%, 2015년은 51.8%로 증가 추세에 있다(통계청, 2016).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담당해 오던 가사와 육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여성의 가사에 대한 부담은 과학 기술의 개발로 시간과 노력을 줄 수 있어 해결이 가능해졌으나, 육아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고민을 낳게 되었다(이기숙, 2013).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자녀 양육과 교육의 몫이 부모에서 유아교육기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임영주, 2014). 유아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이 증대되면서 가정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써 방과후 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아교육기관의 방과후 과정 운영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서울의 경우 96.6%, 854개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과정 이용 비율은 서울의 경우 2010년 33.1%, 2012년 37.7%, 2014년 47.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4). 육아정책연구소(2016)의 2015년도 KICCE 연차보고서에서 방과후 과정 유치원 452개원, 교사 371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 중 맞벌이 가구 자녀는 67.7%, 학급당 맞벌이 가구는 평균 68.1%로 조사되었다. 방과후 과정이 맞벌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93.3%이고, 도움정도는 평균 4.6점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다.

방과후 과정에 대한 수요 증가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요구로 연결되었고 이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역할과 책임에 변화를 가져왔다. 조안나, 고영자(2015)는 2012년 누리과정의 시작으로 방과후 과정은 정규과정이 끝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예산을 잡아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과는 달리,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기본교육시간과 더불어 방과후라는 시간상에, 법적인 맥락 안에서 합법적으로 규정된 유아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장시간 유치원에서 지내는 방과후 과정 유아의 적절한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양질의 교육과 보호의 균형이 맞는 교육과정, 종일반 유아에게 부족한 경험을 보충해 주는 교육과정, 프로젝트 접근법을 활용한 심화·확장된 교육과정, 오전-오후 프로그램이 연계된 교육과정, 혼합 연령 학급에 적합한 교육과정, 부모의 관심과 협력을 적극 유도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통의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경우 원아모집과 학부모의 요구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안혜진, 2012). 이러한 방과후 과정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방과후 과정이 교육과정의 활동을 심화·확장하는 장으로 인식되기보다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서현, 이승은, 2008). 유치원에 장시간 머무르는 방과후 과정 유아는 정규과정보다는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최수연, 2010).

방과후 과정의 경우 긴 일과 시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

거나, 자연친화적 교육활동을 심화·확장한다든지, 체력 단련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홍용희, 김기혜, 강경아, 김수정, 2007). 김윤미(2013)는 방과후 과정의 교육과정은 오전의 교육과정반에 비해 정해진 교육과정이 없고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 역량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하였다.

방과후 과정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심화·확장할 수 있는 활동의 매체로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다. 문학작품 중 하나인 그림책은 유치원에서 교육활동의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림책은 성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 언어의 소리에 의지하고, 그림을 보면서 언어의 이미지화에 의지하면서 언어의 세계에서 인간 체험의 교류를 경험하게 하는 독특한 매체(신명호, 2009)로 그림책 읽기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유아의 정서적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이상금, 장영희, 2001), 그림책을 읽고 듣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유대감도 쌓을 수 있다(김현희, 박상희, 1999). 유치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방과후 과정 유아에게 그림책은 전인 발달을 돕고 교육과정반의 활동을 심화·확장할 수 있으며 부모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매체이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가정과 연계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제동화를 활용한 경제교육이 유아의 경제개념과 소비행동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김혜영, 2002; 황경윤, 2011)와 동화를 활용한 가정연계 인성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노미숙, 2014) 및 가정과 연계한 책읽기 활동이 유아의 책읽기 습관형성 능력과 언어 표현력을 증진시켰다는 연구(김성자, 2007) 등이 있다. 유은석(2008)은 가정과 연계한 그림책 활동이 어머니와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쳤으며, 김수영과 이미경(2010)은 가정과 연계하여 교통안전 그림책 읽기를 실시함으로써 유아의 교통안전지식과 교통안전 문제해결사고 능

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교육의 기능이 가정에서 기관으로 이양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방과후 과정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한 부모교육과 지원은 더욱 중요하다(김희진, 2014).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긴 시간동안 격리되어 있으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정서적 불안과 심신의 피로감을 가지는(김희영, 2005; 오경미, 2003) 방과후 과정 유아들의 심신 보호와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과의 긴밀한 관계와 협조가 필요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2학년까지의 아동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교사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Barbour, Chandler, & Barbour, 1997) 유아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인 가정이 기관이나 사회의 영향보다 더 크다.

권미경, 윤재석, 조혜주(2015)는 가정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상을 통한 면대면 교사-부모 만남 기회 확대, 신입원아를 위한 적응프로그램 개발, 아버지 참여 기회 마련, 가족단위 참여 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능동적 참여자로의 부모 역량강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참여 확대, 가정과의 의사소통 통로 다면화를 제안하였다.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 방법이 주로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을 통해 특별히 계획한 것이 아닌 일상을 통한 연계의 비율이 높고, 도보로 등·하원 하면서 교사와 부모가 자연스러운 면대면의 기회를 갖게 되면 유아에 대한 다면적인 직접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쉬운, 유아 환경 주체 간의 연결일 수 있다. 의사소통은 연계의 통로이다. 가정과의 의사소통 통로 다면화를 위해 교사는 부모에게 이용 가능한 의사소통 및 전달의 절차와 통로에 대해 미리 안내하기, 다양한 통로를 이용하여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부모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소통의 효과를 경험하게 하기, 첨단매체나 SNS 등을 활용하여 소통 기회를 늘리기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정연계가 유아의 수학적 능력과 과학적 태도, 친사회성 발달, 인성교육,

유아의 과학적 태도 및 탐구능력 증진(김성미, 2008; 김창희, 2014; 장정은, 2012; 전연주, 이진숙, 2007)에 효과적이었으며 가정연계 활동을 통해 유아의 기초체력도 증진시키고 환경 친화적인 태도도 기르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밝힌 연구(방은경, 2011; 오진미, 2014)도 있었다. 또한 정미애(2012)는 가정과 연계한 유아 정서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채경란(2007)은 유치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가정연계가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교육과정반 유아와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고, 방과후 과정반 유아와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는데 한계가 있다. 가정연계에 참여한 부모는 비 참여 부모보다 자녀의 학습과 발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며 이러한 부모의 노력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배지희, 2002) 유치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과후 과정 유아에게 가정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과정반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과정이 가정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 과정을 거치면서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와 부모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활동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와 부모의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유치원과 가정의 교육적 소통을 증진시키고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실행 과정은 어떠한가?
2.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와 부모의 변화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방과후 과정

본 연구에서 방과후 과정반은 이전의 종일반을 뜻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 의해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말한다(법제처, 2016).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4~5시간의 의무 기본과정 이외의 교육과정은 모두 방과후 과정으로, 2013년부터 유치원 종일반을 지칭하는 용어 또한 방과후 과정으로 변경되었다. 용어만 변경되었을 뿐 만 3~5세 유아에게 하루 8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정의는 이전과 동일하다.

2) 그림책

본 연구에서 그림책은 방과후 과정반의 교수-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이다. 유치원에서 매달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선정한 그림책을 교사와 유아가 반복적인 읽기와 보기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그림책 속에서 찾아낸

다양한 활동으로 놀이한 후 가정에서도 놀이하는 것이다. 유아가 유치원에서 그림책과 관련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한 후 가정에서도 활동을 전개한다. 유치원과 가정에서 교사와 유아, 유아와 부모가 나누는 교육활동의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 그림책이다.

3) 가정연계

가정연계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연계되어 함께 실시하는 교육활동으로 부모 참여 또는 부모교육,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교육활동과 운영에 참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강문희, 2002)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의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 유아교육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연계는 소극적 의미로 Epstein(1996)의 부모 참여 유형 중 하나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돕도록 지원하기이다. 방과후 과정반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가정에 소개하면 가정에서는 이에 참여한 후 그 결과를 유치원으로 다시 보내주는 형태의 연계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방과후 과정

1) 방과후 과정의 개념 및 운영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취업모의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쇄신 과제로 선정하면서 부터였다(오유숙, 2014). 1995년 3월부터는 각 지역의 특성과 유치원의 실정, 교육적 필요에 따라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교육부, 1995).

유아의 전인적 성장 도모와 학부모의 안정적 사회활동 참여라는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 시작된 방과후 과정은 2011년까지 통용되던 유치원 종일반의 명칭에서 2012년 유아교육법의 개정 및 누리과정 시행과 함께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반일제, 시간 연장제 및 종일제로 구분하여 혼재하던 유치원 교육과정이 기본교육과정인 ‘교육과정’과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인 ‘방과후 과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이 때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항에서는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2014). 2013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3~5세 누리과정에 의하면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기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및 보호활동이며, 법조문 상으로 교육과정처럼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관 및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장관의 결정사항이며,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방과후 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하루에 8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법정 교육 일수 180일 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 부모 유아기 자녀들의 발달과 성장을 위하여 이들의 교육 및 보호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방과후 과정의 수요 확대로 나타났다. 방과후 과정을 원하는 가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충실한 방과후 과정의 운영은 유아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 방과후 과정 운영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뿐 아니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면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형태 등의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정유정, 2010).

서울특별시교육청(2016)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에 나타난 방과후 과정 운영 기본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과후 과정 운영 방식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부모의 요구와 유치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학기 중, 방학 중, 토요일)할 수 있고 이는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걸쳐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특성화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 운영은 가급적 지양하고 휴식, 안전, 영양 및 건강, 바깥놀이 등 유아의 발달 및 연령에 적합하게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유치원 실정 및 부모의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특히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가 배치된 유치원은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을 적극 권장한다.

방과후 과정의 참여대상은 교육과정 참여 유아 중 맞벌이 가정 유아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지역 여건이나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돌봄이 필요한 유아로 참여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 한 부모 가정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프로그램은 유아 발달 및 연령을 고려해 돌봄 프로그램, 교육과정 심화·확장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성화 활동은 가급적 지양하고 돌봄 위주 활동을 권장한다. 방과후 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일일계획안의 경우는 별도 수립·관리한다.

담당 인력은 방과후 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담 교원 배치를 권장한다. 방과후 과정 학급을 1일 8시간 담당할 것을 권장한다.

방과후 과정 교사의 연수 지원은 방과후 과정 담당 교직원인 관리자,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별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방과후 과정 업무 이해와 자질 및 역량 강화 내용을 위주로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운영한다.

재정 지원은 방과후 과정 유아학비,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비,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 예산 지원으로 방과후 과정의 질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과후 과정(특성화프로그램 포함) 예산의 적법하고 투명성 있는 운영을 한다.

홍보는 방과후 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학 지원 및 컨설팅 운영 시 우수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성과 홍보 활성화 등으로 정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에 기여한다.

시설 및 환경은 유아가 편안하고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실외놀이 전용시설을 확보한다. 수면과 휴식 공

간은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침구는 청결하게 관리한다.

급·간식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급·간식용 제공 음식의 위생 관리와 영양소의 균형을 고려한다.

출결과 보건은 매일 출결상황을 파악하고 결석이나 건강이상 발견 시 유치원의 보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학부모에게는 전화, 문자(SMS), 앱(APP)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즉시 통보하여 상시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학부모가 동행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 미동반 귀가 시를 대비하여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를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관련법령(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동승보호자 탑승 및 탑승 유아 좌석안 전띠 착용의무, 안전한 승·하차 확인 등을 안전운행 필수요건으로 상시 점검·확인한다.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한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과 함께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이 지역교육청마다 고시되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매년 방과후 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자체 점검 및 지도·점검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고, 각 단위유치원에서는 지도·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사항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단위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문지희(2016)는 교사들은 방과후 과정 운영의 목적을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프로그램의 제공이며, 운영의 필요성은 학부모의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누리(2015)의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담교사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방과후 과정의 오후 교육활동은 오전의 교육활동이 연계·심화되거나 특성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특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장안나(2015)는 공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특성화 활동에 관해 교사들은 유아의 발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과정의 특성화 활동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고, 안정적인 방과후 과정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인식을 가진 교사들도 있었다.(진다정, 201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과후 과정은 학부모의 요구와 함께 유아의 발달적 측면이 고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도울 수 있는 전담교사의 계획적인 운영 아래 방과후 과정의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국가의 교육적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2) 방과후 과정의 교육계획과 교육활동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을 심화·확장하는 활동과 돌봄 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 등 유아의 발달 및 요구, 연령을 고려하여 각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이는 별도의 교육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하에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은 오전 교육과정과 별도의 연간계획과 함께 교육목표부터 내용, 방법, 시설·설비에 이르기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방과후 과정이 단순한 케어의 기능이 아닌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과후 과정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는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을 반영해야 하며, 방과후 과정의 교육과정 계획에 기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신체적 보호를 위한 기본생활습관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과 보호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통합되어 다루어지도록 하고 장시간 유치원에 머물게 되므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과 안전, 영양에 대한 보호적 요소가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방과후 과정의 일과 운영은 오전의 교육활동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지식 및 기능 위주 교육을 하

기 보다는 편안한 휴식과 함께 바깥놀이와 개별 유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놀이 중심의 활동이 요구된다(정유정, 2010). 그러나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별도의 활동이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특기지도와 문자지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윤경숙, 2007; 홍용희, 김기혜, 강경아, 김수정, 2007).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방과후 과정의 대·소집단 활동은 연령 및 교육내용에 따라 집단 형태를 결정하고, 학기 초에는 대집단 활동보다는 개별 및 소집단 활동을 연령 및 사전 경험을 고려하여 계획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예컨대 방과후 과정의 대·소집단 활동은 시간적인 제한으로 교육과정반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심화·확장된 집단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한다. 활동의 예로 프로젝트 접근법, NIE 활동, 책 만들기 활동, 토의 활동, 박물관 학습, 소집단 협동학습, 체육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방과후 과정반의 유아는 가정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면서 심리·정서적으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이순영, 1997), 교육과정반의 유아보다 공격성이 높고(조선숙, 2001), 불안 행동, 미성숙 행동 등을 포함한 부적응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영숙, 고선희, 2005). 장시간 유치원에 머무르는 방과후 과정의 유아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보육과 부모의 몫을 대신하는 교육의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송주연(2014)은 실외 전래놀이 활동이 방과후 과정 유아의 또래 유능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이루리(2014)는 실외놀이 중심의 방과후 교육과정이 유아의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의 수업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연구로 방과후 과정에서 긍정적인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사는 유아의 수준을 고려하고, 방과후 과정 유아에게 필요한 놀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방과후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송주연, 2014). 하지만 현재 유치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과후 과정의 교

육활동은 전담교사에 의한 교육활동보다는 외부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연구되어지고 있다(이승숙, 2011; 임운앵, 2016; 정가영, 2012; 최정민, 2011).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은 유치원 교육환경의 영향을 더 오랫동안 받고 있는 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실환경을 비롯한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유아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시기 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교사에 의해 계획되어진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때 유아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 그림책

1) 그림책의 특성 및 가치

그림책은 그림으로 변화를 주면서 이야기를 즐겁게 이해하도록 하는 그림이 풍요로운 도서를 말한다(고문숙, 임영심, 김수향, 손혜숙, 2007). 유아에게 그림책의 그림은 단순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글로,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림으로 표현해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어 이야기 세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성인을 위한 책과는 다르다. 이러한 그림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 1997).

첫째,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조화로 딱딱한 말의 의미가 시각화 되어 나타난다.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라도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이 처한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 충분히 형상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림책은 일상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현실을 뛰어 넘어서는 놀이의 세계, 상상의 세계가 있다. 그림책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연결시켜 유아에

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좋은 매체이다.

셋째, 그림책은 대부분 이야기가 짧고, 내용이 단순하며, 주제 또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다. 이야기가 길어지고, 내용이 복잡하고, 주제를 이해하기 힘들면 언어는 리듬감을 잃어버리고, 언어의 맛을 상실하게 된다.

넷째, 그림책은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 좋은 책은 설교하는 책은 아니더라도 유아에게 비윤리적, 비교육적 내용은 담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그림책의 특징은 유아에게 그림책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유아에게 그림책은 다양한 문학적 장르에 접할 수 있는 최초의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즐거움과 재미를 바탕으로 유아에게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자기 인식은 물론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심미적인 경험까지 하게 할 수 있다(김예연, 2002). 그림책은 유아문학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장르를 다 포함하여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장르이다. 즉 그림책은 옛날이야기나 환상동화, 생활동화, 동요·동시·위인전들이 모두 그림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림책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교육활동으로도 끌어낼 수 있다. 그림책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면 유아는 그림책을 통해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발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김희정, 2010).

김세희, 현은자(1997)는 유아교육학자들이 들고 있는 그림 이야기책의 가치를 어린이의 독서에 대한 취향과 태도형성, 간접 경험의 제공, 상상력과 상상력의 신장, 언어발달, 심미적 감상력의 발달을 도와주므로 유아기에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였다.

그림책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며 그림책을 통해 유아는 효과적인 전인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어머니들 또한 이러한 그림책

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어떤 그림책을 선택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읽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김미영, 2005). 이로 인하여 어머니들은 그림책 선택 시 발달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책이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책 등을 많이 구입하고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지만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배제된 멀티미디어 그림책 제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김세희, 현은자, 1997; 임미선, 2005). 또한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그림책 읽기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접근이 용이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김미영, 2005). 따라서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는 유아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며 심미적 경험을 발달시키고 상상력과 함께 사고를 발달(김희정, 2010) 시킬 뿐 아니라 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림책을 교육활동에 적용하는 것(김수영, 이미경, 2010; 김주현, 2014; 유은석, 2008; 이아영, 2014)은 유아 뿐 아니라 부모에게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바람직한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그림책의 특징과 가치는 유아와 교사, 유아와 부모가 상호작용하며 간접적 경험을 접하도록 돕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유아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그림책의 교육적 활용

유아에게 그림책은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면서(박정민,

2015) 유아기의 아이들은 흥미와 주의 집중이 잘 분산되며, 구체적인 경험 없이는 학습과 경험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정한 교과 중심의 교육보다는 모든 발달영역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학습방법을 계획하여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그림책을 본 후 교사와 유아의 경험과 지식, 교육의 내용, 발달 영역, 유치원과 가정 간의 연계를 통하여 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인 이야기 나누기, 토의하기, 동극, 역할놀이, 신체표현, 미술 활동 등을 그림책을 활용하여 적용하는 통합 활동이 바람직하다. 그림책 읽기는 유치원과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 전달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그 이유는 그림책 읽기 활동이 학습이 아닌 놀이로서 유아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인 동시에 유아의 발달을 이끄는 교육적인 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이 남, 2005).

김현희, 박상희(1999)는 그림책은 유아의 상상력을 돕고, 유아 자신의 정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유아에게 예술적 감흥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부모는 유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언어를 체득하게 되며, 언어에 대해 익숙해지면 언어가 파생하는 문장의 의미, 글의 의미, 나아가 이야기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림책의 활용이 언어능력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박경선, 2013; 정경희, 2010; 최명희, 2011), 사회적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권영심, 2013; 이소은, 2015; 이진혜, 2012; 전현미, 2012),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김민정, 2008; 신윤정, 2014; 이혜숙, 2014), 수학 능력과 과학적 탐구 능력에 미치는 영향(김희영, 2009; 송윤희, 2016; 신민기, 2012; 이서빈, 2010)에 관련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 감성 교육 프로그램 등 그림책을 매개로 한 통합적인 교육방법은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고 있다(박문희, 2010; 한윤경, 2007).

특히, 가정과 연계한 그림책 활용은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중 하나이다. 남주희(2012)는 가정과 연계한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 흥미,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연계한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은 유아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김주현(2014)은 직업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 연계 진로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직업 관련 그림책 읽기만 실시하는 것에 비해 유아의 진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연계한 도서대여 활동이 유아의 언어창의성과 언어표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정재연, 2015)도 있었다. 이아영(2014)의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부모교육은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어머니의 문학 교수 효능감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아기는 누군가 들려준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문학적 감상을 키우는 시기이다. 특히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인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에 유아는 그림을 읽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글과 그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감상하면서 그림책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남주희(2012)는 여러 학자들이 밝힌 그림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책 읽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다. 둘째, 친밀감을 형성한다. 셋째, 상상력과 사고의 발달을 가져온다. 넷째,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다. 다섯째, 심미적인 감상력을 발달시킨다. 여섯째, 자연스럽게 언어를 체득하도록 한다. 일곱째,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를 인식하고 문학적 감성을 기를 수 있다.

강남희(2010)는 유치원에서 매일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은 유아의 언어능력 중 읽기 동기, 읽기 흥미, 어휘력, 언어 이해력, 언어표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강보라(2012)는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적 유아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음악성 하위요인인 음악적 표현력, 음악적 인지력, 음악적 태도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수옥(2015)은 그림책을 통한 질문생성전략은 유아의 창의성과 도덕적 판단 및 정서표현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그림책은 유아가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 표현력, 언어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줌으로써 유아가 심미적 감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그림책은 유아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자료이며 이를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뿐 아니라 가정연계를 통해 다양한 활용의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 자료이다.

3. 가정연계

1) 가정연계의 개념과 중요성

가정은 유아가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곳으로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이며, 부모와의 관계는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의 기능 약화와 유아교육기관의 팽창은 종래 가정이 가지고 있던 교육 및 훈육적 기능을 점차 약화시켰고, 유아교육기관의 절대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로부터 점차 유아교육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옮겨지고 있다(정문자, 1992).

Robinson(1980)은 가정환경은 유아의 사회·인지·감성적 행동발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라고 했으며, 따라서 유아교육이 장기적 효과를 얻기

위해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부모를 참여시키고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고, Hess와 Hollway(1984)는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기능의 효율성은 두 기관사이의 갈등·혼돈·공동 목표의 결핍, 또는 동기나 인지적 기술상의 불일치 등에 의해 두 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지적하였다(임효선, 2010 재인용). 이렇듯 유아교육에 있어서 가정과의 연계는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가정과 유치원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연계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연계하여 교육활동을 함께 전개하는 것으로 부모참여나 부모교육, 가정과의 협력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 발달이나 지적 발달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객관적 판단을 하기 어렵고, 반면 교사는 각 유아의 집단생활 태도나 발달 등에 관하여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이성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가정과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이대균, 송정원, 2005).

임재택(1995)은 유아교육에서의 부모참여의 중요성과 가정연계의 필요성을 유아기에는 가정과 부모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지대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가족 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인 문화 전달 및 교육적 기능의 약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가정연계는 유아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교사는 부모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교육활동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부모는 유아교육기관을 신뢰하게 되어 교육의 효과를 지속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Epstein과 Dauber(1991)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활동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할 때 부모는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와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자녀를 돕는 능력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자녀의 학습 태도와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는

부모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유아를 가르치는 일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므로 부모도 유아교육기관을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정연계는 유아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나혜선, 2016 재인용). 또한 가정과 연계한 포트폴리오 유아평가 수행과정에 부모가 참여하여 평가하는 것은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아의 발달 수준을 알게 해 주며, 기관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이순례, 한미양, 2011).

김성자(2007)는 가정과 연계한 책 읽기는 유아와 어머니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었으며 유아의 언어발달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창희(2014)는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가 참여하지 않은 유아보다 친사회적 행동과 편견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정미애(2012)는 가정과 연계한 유아 정서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면서 유아 정서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가정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정과 연계된 일상경험을 통한 수학적 탐구활동은 유아의 수학적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김성미, 2008). 가정과 연계된 요리활동은 유아의 과학개념 및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최정옥, 2006).

이진호(2016)는 가정연계 신체활동은 유아의 기초체력과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가정과 연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 기초체력 변화의 차이는 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유연성의 5개 기초체력요소 모두 향상을 가져왔으며, 유아의 정서지능 전체와 하위요인인 자기인식,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철, 2013).

위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과 연계된 교육활동은 유아의 사회, 정

서발달은 물론 언어발달 및 수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태도, 신체 발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부모와 교사가 동반자의 입장에서 협력과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때 교육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다. 유아의 학습 성과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계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실천되어야 한다(김숙자, 1989). 유아와 부모가 가정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가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교육의 질이 심화·확장될 뿐 아니라 부모에게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효과도 함께 제공되어 질 수 있다.

2) 가정연계의 형태와 방법

가정연계는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의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 유아교육과 유아의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가정연계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교육의 목적, 유아의 상태,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Epstein(1996)은 부모 참여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첫째는 유아의 바람직한 발달과 적절한 학습을 위한 가정의 의무 수행하기, 둘째는 유아의 바람직한 발달과 적절한 학습을 위한 학교(교사)의 의무 수행하기, 셋째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직접 와서 참여하는 활동이다. 넷째는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돕도록 지원하기, 다섯째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부모가 참여하여 유아의 권리를 옹호하기, 여섯째는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돕기 위한 노력하기이다.

Greenwoof & Hickman(1991)은 가정연계의 유형을 첫째, 교육기관 방침과 연간교육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부모모임의 참여, 둘째, 유아에 대한 지식이나 기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를 얻게 되는 부모교육 시간 참여, 셋째, 교사와의 상담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 자료 제작에 대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 넷째, 교육기관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행사 참여, 다섯째, 교육기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사 결정자로서의 참여 등으로 구분하였다.

Powell(1989)은 교육기관과 가정 사이의 연계는 교육기관과 가정 사이의 연결과 일치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연결이란 가정과 의사소통을 의미하고 일치란 교육기관과 가정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교육의 목적, 언어의 사용, 성인-유아의 상호작용 유형에서의 일치도를 의미한다(여재원, 2014 재인용). 따라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한 교육의 목표를 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한다든가 자녀와의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을 제시하여 주어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유아의 경험의 혼란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유안진과 김연진(1997)은 유치원에서는 가정통신문, 전화, 면담을 통한 의사소통 활동과 보조교사로서 봉사, 워크숍, 강연, 토론회, 독서회 등 부모회 참여, 장난감 및 교구, 그림책 가정 대여 등 자료 공유의 다양한 형태로 가정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연계의 방법은 부모참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가정 연계와 관련한 연구 또한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부모교육 실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배지은, 2013; 전우경, 2010; 함희표, 2000)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유아교육에 부모 및 가정이 협력하는 차원은 매우 다양하다. 가정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것으로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협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을 통하여 유아교육을 지원하고 유아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데, 유아를 직접 교육하는 것과 함께 유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아교육과 기관에 대한 부모와 가정의 협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를 위해 기관에서는 부모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여 영·유아의 발달과정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기관의 교육방침과 부모의 양육 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 유아의 행동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 기관과 가정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개별상담, 부모-교사 간의 대화, 전화, 가정통신문, 게시판, 인터넷 커뮤니티, 홈페이지, 이메일 등 기관의 상황과 부모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07).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연계 실태를 조사하고 요구를 알아본 임효선(2010)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통신문을 통한 비교적 소극적인 부모참여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 외 가정연계에 필요한 부모 교육프로그램과 개별 상담 등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의 연계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정희(1999)의 연구에서 부모에게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유아들이 보다 풍부한 자원 속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육적 활동 중 그림책 읽기가 가정과 연계될 때 부모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김덕숙, 2001; 김영애, 1998)가 있었다. 가정에서 부모와 유아가 함께 책을 읽는 활동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부터 특별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유아가 함께 공유하고 탐색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부모와 유아의 정서적 유대감과 유아

의 책 읽는 습관 및 태도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김영애, 1998)는 연구 결과와 가정과 연계한 그림책 읽기를 통해 유아는 그림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림책 읽기에 참여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안은주, 2001).

대부분의 가정연계는 유치원에서 실시한 활동을 종이 활동지를 이용하여 가정으로 보내지면 가정에서 함께 활동해 보고 이 결과를 유치원으로 다시 가져오는 방법, 부모교육, 부모 참여 활동 및 통신문 발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김유진, 2010; 남주희, 2012; 노미숙, 2014; 이은수, 2010; 정미애, 2011).

스마트기기의 등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서영민, 이영준(2011)은 스마트기기의 사용은 개인이 다양한 정보를 업무나 교육활동에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교육에 관한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오승석(2010)은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신속한 정보 전달, 공유되는 주제의 일상성, 정보의 개방성과 네트워크 구축의 용이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은 개방성과 확장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소셜 미디어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및 관계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한다는 주장도 있다(최미란, 2010).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의 증가는 이동성 및 즉시성을 바탕으로 이용자들 사이 실시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차력, 2009), 기존 온라인의 특수성에 모바일이 갖는 개별성, 개방성, 전파성 등이 결합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맺기 현상들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연계는 교육이 유치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부모에게 교육내용을 제공해 주고 교육방법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또한 부모로 하여금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면서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실행연구

본 연구는 방과후 과정반의 교육과정을 가정과 연계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방과후 과정반의 교육활동을 유치원과 가정이 협력적으로 진행한 실행연구이다.

실행연구는 교육현장의 실천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계획→실행→반성과 성찰’의 과정이 하나의 사이클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여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 지향적 연구이다(이명숙, 2001; 이용숙 2005; 이혁규, 2012). 탐구의 과정 자체와 연구자의 자기 성찰을 매우 중시하므로 실행연구의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연구자의 자기 성장이다. 실행연구는 협동과 참여를 강조한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정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공동 인식을 성장시키고 공동체적 성취를 달성하는 것을 요청한다(이혁규, 2012).

본 연구는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인 방과후 과정의 유아들로 부모와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행연구를 선택하였다. 방과후 과정반에서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를 위해 유치원과 가정이 공동의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유아, 연구자, 부모가 유기적으로 협동과 참여를 독려하며 현장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부모에게는 방과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알림으로써 참여를 유도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도와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적용하여 유치원과 가정이 함께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현장 및 연구 참여자

1) 참여기관

(1) 동산유치원¹⁾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동산유치원은 서울시 D구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이다. 동산유치원은 주택가 주변에 있으며 주변에 초등학교, 대학교, 어린이도서관 등이 있다. 동산유치원은 교회부설 유치원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신앙교육을 누리과정에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다.

동산유치원은 1999년 개원 이래, 2012년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여 5층 건물 중 1, 2층을 유치원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1층에는 교무실과 3개의 교실, 화장실, 주방, 도서관, 한 개의 교재실이 있으며, 2층에는 원장실과 교무실, 2개의 교실, 화장실, 한 개의 교재실이 있다. 유아들이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바깥놀이터는 유치원 옆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제공한 텃밭용 상자와 복합놀이기구가 있다.

교직원의 구성은 원장, 원감, 정교사, 보조교사, 행정직원, 영양사, 조리사, 하모니 교사, 운전기사로 이루어져 있다. 각 반 담임은 4년제 대학과 3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1년~1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학급구성은 교육과정반은 만 3·4·5세 각 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 3·4세는 생활주제에 따른 연령별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만 5세는 생활주제에 따른 연령별 누리과정과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과정반은 실제 운영은 만 3세 1학급, 만 4·5세 각 2학급(출석부상으로는 만 3, 4세 혼합연령 2학급, 만 5세 단일연령 2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치원 이름, 학급 이름, 유아 및 가족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

정반 중 약 60.7%가 방과후 과정반이다.

동산유치원의 가정연계 활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녀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가정통신문, 부모 참여 수업, 상담, 부모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가정연계 활동은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전달하는 일방향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과후 과정반만을 위한 가정연계 활동은 따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2) 만 4세 방과후 과정 꽃잎반

동산유치원 만 4세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은 남아 5명, 여아 10명으로 모두 15명이다. 유아 중 8명은 재원생이고, 7명은 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 전입한 유아이다. 원아는 모두 근처 아파트나 주택에서 도보나 유치원 버스를 이용하여 등·하원을 하고 있고, 하루일과는 교육과정반이 9시부터 14시 40분까지, 방과후 과정반은 14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저녁 돌봄은 17시 40분부터 20시까지이다. 본 연구자가 담임인 방과후 과정 꽃잎반은 오전에는 교육과정반인 샘물반에서 샘물반 담임교사와 9시부터 14시 40분까지 시간을 보낸다. 14시 40분이 되면 이동하여 방과후 과정 꽃잎반(꽃잎반 교실은 교육과정반인 바다반을 사용함)으로 교실을 옮긴다. 방과후 과정반의 하루 일과는 14시 40분부터 인사 나누기로 시작되며, 자유선택활동, 오후 간식 먹기, 대·소집단활동(그림책 관련 활동), 바깥놀이 활동, 1차 귀가, 2차 귀가, 개별 활동 등과 같은 일과로 마무리 된다. 1차 차량 귀가가 17시에 이루어지므로 꽃잎반 교육활동은 17시 이전에 마무리되고, 그 이후 시간은 자유선택활동 및 개별 활동이 진행되고 부모가 오는 순으로 개별적으로 귀가한다. 가정연계를 위한 그림책 관련 활동은 주로 자유선택활동시간과 대·소집단활동 시간에 이루어졌다. 방과후 과정반 꽃잎반의 하루일과

는 표 1과 같다.

<표 1> 꽃잎반의 하루일과

시 간	활 동
07:00-09:00	등원 및 자유선택활동
09:00-14:40	교육과정반 샘플반 수업 (꽃잎반으로 이동)
14:40-14:50	인사나누기
14:50-15:50	자유선택활동(그림책 관련 활동) 및 정리
15:50-16:10	오후 간식
16:10-16:30	대·소집단 활동(그림책 관련 활동)
16:30-16:50	바깥놀이 활동
16:50-17:00	1차 차량 귀가
17:00-17:40	자유선택활동 및 2차 차량 귀가
17:40-20:00	개별 활동 및 개별 귀가

2) 연구 참여자

(1) 연구자

본 연구자는 만 4세 방과후 과정반 꽃잎반 담임교사로서 연구 참여자인 동시에 연구자이다. 본 연구자는 4년제 대학에서 한문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뒤 2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유아교육을 전공하였다. 졸업한 뒤 3년간 사립유치원에 근무한 뒤 이직하여 현재의 유치원에서 14년째 재직 중이다. 12년 동안은 만 5세 교육과정반을 담임했다. 담임의 업무와 원감의 역할을 병행한 것은 7년째이며 담임과 원감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힘은 유아교육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잘 훈련받은 교사가 좋은 교육내용을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운영해도 이를 이해하고 지

지하는 가정의 부모가 없다면 교육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없음을 교육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담임의 업무만 맡고 있을 때에는 수업 자체와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에만 집중하였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원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치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의 태도는 교육을 실천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유치원 교육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보내기 위해 일찍 귀가를 요구한다든지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정에 요청하는 부가적인 활동에 참여가 부족한 것을 보면서 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교육과정반의 교육활동을 방과후 과정반에서 심화·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책을 활용하였다. 그림책 속 내용을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전개한 후 마지막 활동으로 그림책에 꽃잎반 유아들의 사진을 넣어 꽃잎반만의 그림책을 완성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전개하였다. 유아들은 수업에 참여하면서 즐거워하였고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흥미와 관심은 교실 안에 끝났고, 이를 가정까지 가져가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연구자는 가정연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활동의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으로 올렸고 이를 가정의 부모에게 공지하는 소극적인 연계를 시도했지만 이 또한 부모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연구자는 유아들의 그림책 활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왜 가정까지 지속되지 못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까지 방과후 과정반과 가정 사이에 특별한 연계 활동이 없음을 인지하였다. 그렇다면 방과후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정과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림책 활용을 통한 가정연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이 유아에게 흥미로웠다면 가정에 가서도 이를 전달하고 활

용하는 시도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는 유치원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연구자는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가정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방과후 과정반의 교육과정을 계획안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소개와 가정의 활동을 유치원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였다.

꽃잎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가정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고, 계획적인 가정연계를 실천함으로써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아 및 부모

본 연구에는 만 4세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 15명의 유아와 그의 부모가 참여하였다. 만 4세 꽃잎반 15명의 유아 중 14명은 맞벌이 가정의 유아이며, 나머지 한 가정도 다자녀로 인해 바쁜 생활을 보내는 가정이다. 15명의 유아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반에 속해 있다. 유아 중 13명의 유아는 형제나 자매가 있고, 2명의 유아는 외동이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아침에 등원시키면 오후 5시 이후에 하원을 시키거나 학원 등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 후 저녁이 되어서 유아를 만난다. 부모는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잘 어울려 놀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이므로 부모가 주중에는 직장생활로 바빴으며, 유아를 만나는 저녁시간도 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두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형제와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유아가 1:1 상호작용이나 활동하기에 용이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말은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

부모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가 담긴 연구 참여 동의서를 유인물로 배부한 뒤 회수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15부 배부하였고 이 중 14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되지 않은 한 가정도 연구에는 적극 참여하였다. 유인물을 회수하는 데 있어 강제성을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 자율적인 회수를 존중하였다.

꽃잎반 유아들은 방과후 과정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을 가정에 소개하는 일은 많지 않았고, 간혹 자신이 그림책 속에 주인공이 되었을 때에만 가정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정의 부모 또한 월간교육계획안을 통해 방과후 과정반의 교육과정에 대해 전달을 받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전달에 불과했고 그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부모는 없었다. 유치원에서 계획된 부모교육은 입학식, 1·2학기 상담, 부모연수, 유치원 행사 등의 8차례였다.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 유아의 가족 구성원, 맞벌이 여부 및 유아 부모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꽃잎반 유아의 가족 구성원, 맞벌이 여부 및 부모교육 참여율

유아명	성별	형제관계	맞벌이 여부	부모교육 참여율(%)
김**	남	누나 1	○	50
김**	여	동생 1	○	50
김**	여	오빠 1	○	50
김**	여	쌍둥이언니	○	62.5
서**	여	동생 1	○	62.5
서**	여	외동	○	50
송**	여	외동	○	50
신**	남	형 1, 동생 1	○	50
양**	남	동생 1	○	50
우**	여	동생 1	○	50
이**	여	동생 1	○	62.5
이**	여	오빠 4, 언니 1	×	50
전**	여	언니 1	○	50
진**	남	누나 1, 형 1	○	50
홍**	남	형 2	○	50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을 통한 가정연계 활성화를 위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실행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유아와 부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2015년 9월 7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행연구의 과정은 순환적, 반성적, 비판적인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이해와 행위가 연결되는 실천적 지식을 산출하는 Kemmis와 McTaggart가 제시한 나선형의 자기반성적 연구 사이클 모형(이용숙, 2005 재인용)과 최미순(2016)의 실행연구 절차를 참고하였고, 연구 일정 및 실행절차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일정 및 실행절차

구분	실행절차	기 간	내 용
준비 과정	문제 인식	2015. 6. 29. - 2015. 7. 26.	-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파악
	본 연구의 실행계획 및 1차 실행방안 모색	2015. 9. 7. - 2015. 9. 27.	-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에 관한 문헌연구 - 유치원에서 선정한 그림책 가정에서 돌려보기 - 유치원과 가정을 연계할 수 있는 그림책 활용 활동 구성
본 연구 과정	1차 실행	2015. 9. 28. - 2015. 10. 18.	-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활동 전개 - 가족 활동지 배부를 통한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 가정에 있는 그림책에 관심 가지기 - 가정의 그림책 유치원에서 돌려보기 -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에 관한 관심 정도에 관한 설문지 배부

본 연구 과정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2차 실행방안 모색	2015. 10. 19. - 2015. 11. 1.	- 1차 실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반성적 사고 및 평가 - 1차 실행을 바탕으로 2차 실행방안 모색
	2차 실행	2015. 11. 2. - 2015. 12. 26.	- 2차 실행방안을 바탕으로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활동 전개 - SNS 활용을 통한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전개 -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에 대한 도움 정도 및 학부모 요구에 관한 설문지 배부
	2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평가	2016. 1. 19. - 2016. 2. 19.	- 2차 실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반성적 사고 - 실행에 따른 유아와 학부모의 변화분석 - 가족 그림책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및 가정 참여 유도 -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방과후 과정반 가정연계 활동에 대한 평가 -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를 통한 변화에 관한 설문지

1) 준비 과정

(1) 문제 인식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연구를 위해 2015학년도 1학기에 꽃잎반에서 진행된 가정연계 현황을 파악하였다. 유치원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가정통신문이나 상담 등의 보편적인 부모 대상 유인물과 면담은 있었지만 유치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꽃잎반만을 위한 가정연계 방법은 없었다. 2015년 6월 29일

부터 2015년 7월 26일까지 꽃잎반에서 진행된 가정연계는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매달 배부되는 월간교육계획안과 교사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림책 활용 결과물인 사진자료가 가정과 소통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 또한 가정연계를 통한 소통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과 글쓰기에 불과했다. 유치원과 가정 간에 협력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교사는 유아에게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실행할 수 있으며 부모는 유치원에서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다. 부모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 활동 특성에 따라 부모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유치원과 교사의 의무인 것이다. 유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와 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하게 의사소통하여 유치원에서의 활동과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통신 및 책자, 집단모임, 부모면담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서울특별시교육정보원, 2015).

연구자인 교사는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유치원에서 보내는 방과후 과정반 유아에 대한 정보나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는 단순히 유치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방과후 과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데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전화 통화나 등·하원 시 부모를 만났을 때 주요 대화 내용은 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이었고, 방과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나 그림책 활용과 관련한 대화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정의 부모가 방과후 과정 교육과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2) 본 연구 과정

(1) 본 연구의 실행계획 및 1차 실행방안 모색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실행연구에 적용한 그림책은 동산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선정된 그림책이다. 동산유치원 방과후 과정반의 그림책은 어린이도서관의 추천도서와 신간도서 목록 중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만 4세 유아에게 적절한 책을 만 4세를 담당하는 방과후 과정반 교사 2인의 협의로 선정하였다. 방과후 과정반에서 선정한 그림책은 표 4와 같다.

<표 4> 방과후 과정반의 연간 교육계획안 중 생활주제별 그림책 목록

월	생활주제	그림책
9	하나님 안에 우리는 형제자매, 세계 여러 나라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10	하나님이 수놓으신 풍경, 가을	가을이 좋아
11	다스리고 가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동동이의 여행
12	예수님의 사랑 전하기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주셨단다
2016년 1	하나님의 지혜 닮기	개구쟁이 기린
2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만큼 컸어요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을 통한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을 고찰하였다. 문헌 검색을 위해 ‘방과후 과정’, ‘종일반’, ‘그림책’, ‘가정연계’, ‘부모교육’, ‘SNS’ 등이었다. 그림책을 활용한 연구는 그림책의 활용을 통해 극화활동, 문학 활동, 수학 활동, 실험활동, 집단 게임 활동, 토의활동 등이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권영심, 2013; 김희영, 2009; 박경선, 2013; 이서빈, 2010; 이진혜, 2012; 전현미, 2012; 정경희, 2010)가 많았고, 가정과 연계한 그림책 활동은 도서대여 활동이 유아의 언어창의성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정재연, 2015), 양성평등 그림책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박주영, 2010),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및 문학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아영, 2014), 유아와 어머니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김주현, 2014) 등의 연구가 있었다. 방과후 과정에 관한 연구는 교육과정의 실제적 운영보다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오유숙, 2014), 방과후 과정 운영 실태 조사(이누리, 2015), 양육경험이 있는 기혼유아교사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이야기(임영주, 2014) 등의 연구가 있었다. 연구물을 고찰한 결과 방과후 과정반에서 교육과정으로 실행하는 그림책 활용 연구는 없었고 이를 가정과 연계한 연구 또한 없었다. 방과후 과정반의 유아가 증가하고 있고 방과후 과정의 유아는 가정과의 연계가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실행계획은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연구라 생각하였다.

문헌을 조사한 후 그림책에 대한 관심을 가정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책 돌려보기를 실시하였다. 매달 선정된 그림책 중 9월의 그림책을 유아에게 3일 대여 기간을 주고 대여활동을 시작하였다. 교실에 주어진 주제 그림책은 한권 밖에 없었으므로, 만 4세 방과후 과정반인 잎새반의 책을 빌려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여의 순서는 원하는 유아를 우선으로 하였다. 그림책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반납일을 지키지 않거나 그림책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어 대여하는 동안 그림책을 대여할 때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규칙을 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림책을 돌려보고 나서는 대집단 활동 시간에 그림책을 보고 난 소감을 나누고 그림책 속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직접 활동해 보는 시간을 가졌

다. 그러나 유아가 그림책 속에서 교육활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교사의 주도 하에 활동을 찾아서 실행방안을 구성하였다. 1차 실행방안으로 계획된 가정연계 가족 활동은 표 5와 같다.

<표 5> 1차 실행 방안 중 가정연계 활동

월	생활주제	그림책	가정연계 활동	활동영역
9	하나님 안에 우리는 형제자매, 세계 여러 나라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 그림책 둘러보기	언어
10	하나님이 수놓으신 풍경, 가을	가을이 좋아	- 그림책 표지보고 이야기 추측해 보기 - 친구가 추천하는 그림책 보기 - 내가 수확한 감과 벼	언어 과학

(2) 1차 실행

1차 실행은 2015년 9월 28일부터 2015년 10월 18일까지 진행하였다.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과정반 10월의 그림책으로 선정한 “가을이 좋아”의 표지 그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가정에서도 그림책의 표지를 보고 그림책의 내용을 예측해 보고 가정에 있는 가을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1차시 가족 활동지를 만들어 주말이 시작되는 목요일에 가정에 배부하였다. 2차시 가족 활동지는 각 가정에서 가을과 관련한 그림책을 가지고 오면 대여를 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둘러보며 그림책을 고른 유아와 그림책 속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따라 그리며 유아와 부모 사이의 상호작용을 적도록 했다. 가족 활동지의 배부는 주중에 이루어졌고 결과물도 이를 후까지 제안해 주었다. 3차시 가족 활동지는 그림책 속 수확 장면을 보고 유치원에서도 직접 감나무의 감을 수확하는 경험을 한 뒤 수확한

감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감을 먹기 좋게 익히는 방법과 수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는 두 번째 활동지가 배부된 다음 날 배부가 되었고, 활동 결과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지고 오도록 했다. 가족 활동지에는 활동하는 방법과 함께 활동하고 난 소감을 글이나 그림으로 쓰거나 그리고, 유아와 부모가 나눈 대화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1차 실행 시 가정으로 배부된 가정연계 가족 활동지 목록은 표 6과 같다.

<표 6> 1차 실행 시 배부된 가정연계 가족 활동지 목록

월	그림책	회 (날짜)	가정연계 활동(가족 활동지)	활동영역
9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 이 달의 그림책 둘러보기	언어
		1 (10/8)	- 그림책 표지보고 이야기 추측해 보기	언어
10	가을이 좋아	2 (10/13)	- 친구가 추천하는 그림책 보기	언어
		3 (10/14)	- 내가 수확한 감과 버	과학

(3)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2차 실행방안 모색

1차 실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2차 실행방안에 대한 모색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1차 실행 시 가정으로 배부되는 가족 활동지는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 유치원에서 교사와 유아 간 활동이 이루어진 직후에 배부했는데 정기적이지 않은 배부로 인해 가정에 잘 전달되지 않아 부모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차 실행에는 이를 수정하여 주중 수요일과 주말 금요일 주 2회 배부하였다. 수요일에 배부된 가족 활동지는 그 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배부된 활동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유치원으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1차 실행 때에는 가정연계 활동이 주로 정적이고 유아와 부모 상호작용을 글로 옮겨보게 하는 활동이 어렵게 느껴져 이를 수정하여 유아와 부모가 작업을 통해 놀이 중심의 활동으로 계획하였다.

4차시 가족 활동지는 ‘가을이 좋아’ 그림책 장면 중 유아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 장면을 골라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부모와 그림 장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장면의 그림을 잘라 조각을 낸 뒤 퍼즐을 완성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5차시 가족 활동지는 ‘가을이 좋아’ 그림책 속 장면을 소개한 후 그림책의 장면을 가정에서 직접 순서지어보고 이야기를 다시 지어보는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6차시 가족 활동지는 그림책 속 주인공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갔던 장면을 회상해 보며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하여 안부를 묻는 등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찾아보는 활동으로 전개하였다. 유치원과 가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며 유아와 가정의 반응에 기초하여 수업 내용에 대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유아와 상호작용한 전사본이나 현장노트, 활동 평가를 토대로 저널쓰기, 학부모와의 의견 교환 등을 토대로 다음 실행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차후 활동을 준비하였다.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과정 중 가정으로 배부된 가정연계 가족 활동지 목록은 표 7과 같다.

<표 7>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과정 중 배부된 가정연계 가족 활동지 목록

월	그림책	회 (날짜)	가정연계 활동(가족 활동지)	활동영역
10	가을이 좋아	4 (10/21)	- 그림책 장면 퍼즐로 완성하기	수·조작
		5 (10/23)	- 그림책 장면 연결하여 이야기 짓기	언어
		6 (10/28)	-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 할 수 있는 일	의사소통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 후 2차 실행에 계획된 가정연계 가족 활동은 표 8과 같다.

<표 8> 2차 실행 방안 중 가정연계 활동

월	생활주제	그림책	가정연계 활동	활동영역
10	하나님이 수놓으신 풍경, 가을	가을이 좋아	- 그림책 장면 퍼즐로 완성하기 - 그림책 장면 연결하여 이야기 짓기 -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 할 수 있는 일 - 가족과 함께 곳감 만들기 -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가 주인공인 책 감상하기	수·조작 언어 의사소통 과학 언어
11	다스리고 가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동동이의 여행	- 구름책 만들기 - 가족과 함께 하는 구름빵 만들기 - 가족과 함께 만드는 율동 영상 - 우리 가족 환경 지킴이	언어 요리 (과학) 음악 과학
12	예수님의 사랑 전하기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주셨단다	- 가족과 함께 만드는 눈꽃송이 - 우리 가족은 동시 낭독자 - 가족과 함께 꾸미는 크리스마스트리 - 가족과 함께 하는 역할놀이 - 가족사진으로 만드는 그림책	미술 동시 미술 역할 미술·언어
1	하나님의 지혜 답기	개구쟁이 ㄱ ㄴ ㄷ	- 가족과 함께 하는 신체놀이	신체활동
2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만큼 컸어요	- 얼마나 자랐을까? - 많이 자란 우리 아이	수 역할

(4) 2차 실행 및 반성적 사고 및 평가

2015년 11월 2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2차 실행 및 반성적 사고·평가를 진행하였다. 7차시 가족 활동지는 유치원에서 만들어 본 곳감을 가정에서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유치원에서 구입한 곳감 행거를

가정에 대역하여 가정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8차시 가족 활동지는 이전에 부모에게만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를 했던 것을 유아에게도 ‘홈페이지’라는 온라인 공간이 있음을 알리고 홈페이지 상에 올린 자료 중 유아 사진으로 구성된 그림책을 감상하고 난 소감을 적고 이전에 올려놓은 활동사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시하였다. 유치원과 가정의 교사와 부모만이 홈페이지 공간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는 유아와 교사가, 가정에서는 유아와 부모가 홈페이지 공간에 참여하며 유치원과 가정이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9차시 가족 활동지는 “동동이의 여행”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구름을 담은 4쪽의 책을 유아가 직접 만들어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구름의 다양한 모양을 따라 그려보며 연상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10차시 가족 활동지는 구름의 모양을 연상할 수 있는 생크림을 이용하여 구름빵을 만들어 보는 요리활동을 제안하여 부모와 함께 한 요리를 간식으로 먹는 기회를 가졌다. 7차시에서 10차시까지는 가족 활동지를 1차 실행 때와 동일하게 수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주 2회 제공하였다. 그러나 주 2회의 가족 활동지를 제공하던 중 가정에서의 활동 시간이 부족하여 주 2회의 가족 활동지가 부담이 된다는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11차시부터는 주 1회 금요일에 가족 활동지를 배부하여 가정연계를 진행하였다. 11차시는 ‘동동이의 여행’ 속에 나오는 맑은 환경과 관련한 노래를 배우고 노래에 맞는 율동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12차시는 “동동이의 여행” 그림책 속 주인공인 동동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족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13차시는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주셨단다” 속의 배경인 겨울을 대표하는 눈송이를 만드는 법을 안내하고 가정에서 만든 눈송이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3차시의 가족 활동지를 배부한 뒤 유치원과 가정의 소통의 방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스마트 앱을 이용한 온라인 공

간을 활용하여 가족 활동지의 배부나 가정의 활동 결과물을 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과 가정이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14차시는 그림책 속 내용을 축약하여 동시에 재구성하고 이를 가정으로 보내어 다양한 방법으로 동시를 낭독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5차시는 그림책 속에 그려진 크리스마스트리를 절기에 맞게 가족과 함께 구성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유치원에서 다양한 물건으로 트리를 구성해 보고 가정에서도 기존의 상품으로 만드는 트리가 아닌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나 놀잇감을 이용하여 특별한 트리를 만들고 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차시는 겨울방학 직전에 배부된 가족 활동지로 유치원에서 그림책을 재구성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에 있는 그림책을 이용하여 가족사진으로 그림책을 재구성해 보는 가족 활동을 제시하였다. 방과후 과정반의 경우 방학은 없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방학 사기에 맞춰 가족사진으로 만드는 그림책을 제시하였다. 2차 실행방안 모색 중 계획하였던 16차시 가족과 함께 하는 역할놀이는 실행하지 않고 17차시로 계획했던 가족사진으로 만드는 그림책을 제시하였다. 17차시는 “개구쟁이 너구리” 속의 여러 자음을 몸으로 표현해 보고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표현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18차시는 “이만큼 컸어요” 그림책을 통해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가정의 부모가 직접 유아의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부모의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자녀의 키를 재어 보는 활동을 통해 자녀의 성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19차시는 “이만큼 컸어요” 그림책 속 주인공처럼 가정의 자녀가 일 년을 보내면서 성장을 통해 변화된 부분을 찾아보고 사진으로 남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배부되는 가정연계 활동에 관한 정보는 지면으로 배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상의 앱이 공동의 공간을 통해 지면 활동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행 과정은 수정 및 새로운 활동을 반영한 활동계획안을 토대로 진행되었고, 1차시에서 개선된 방법을 2차시에 적용하며, 1차시, 2차시에서 개선되지 못한 활동은 함께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실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치원에서의 현장 기록 및 사진과 동영상 촬영, 유아 면담, 저널, 학부모와의 면담, 설문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실행 시 가정으로 배부된 가정연계 가족 활동지 목록은 표 9와 같다.

<표 9> 2차 실행 시 배부된 가정연계 가족 활동지 목록

생활주제	그림책	회 (날짜)	가정연계 활동(가족 활동지)	활동영역
하나님이 수놓으신 풍경, 가을	가을이 좋아	7 (11/4)	- 가족과 함께 꽃감 만들기	과학
		8 (11/6)	-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가 주인공 인 책 감상하기	언어
다스리고 가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동동이의 여행	9 (11/11)	- 구름책 만들기	언어
		10 (11/13)	- 가족과 함께 하는 구름빵 만들기	요리 (과학)
		11 (11/20)	- 가족과 함께 만드는 율동 영상	음악
		12 (11/27)	- 우리 가족 환경 지킴이	과학
예수님의 사랑 전하기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주셨단다	13 (12/4)	- 가족과 함께 만드는 눈꽃송이	미술
		14 (12/11)	- 우리 가족은 동시 낭독자	동시
		15 (12/18)	- 가족과 함께 꾸미는 크리스마스트리	미술
		16 (12/24)	- 가족사진으로 만드는 그림책	미술·언어
하나님의 지혜 닮기	개구쟁이 기린	17 (1/29)	- 가족과 함께 하는 신체놀이	신체활동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만큼 컸어요	18 (2/5)	- 얼마큼 자랐을까?	수
		19 (2/12)	- 많이 자란 우리 아이	역할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9월 28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이다. 연구를 위해 연구자의 참여관찰 일지, 유아와 부모의 심층면담자료, 연구자 저널, 연구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부모가 전송하여 준 동영상 및 사진, 부모 설문지,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보낸 가족 활동지, 연간교육계획안, 월간교육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 참여자의 세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관찰, 연구하는 방법을 말한다(김영천, 2012). Fetterman(1991)은 “관찰가로서의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구대상에 있는 참여자의 삶에 참여하는 현장 활동”을 의미한다(김영천, 2012 재인용). 연구자가 담임을 맡아 연구대상이나 연구세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였다. 담임교사로서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인 유아들이 연구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의 삶을 관찰하였다.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특정한 주제 즉 그림책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일어날 때, 또 가정에서 이루어진 연계 활동을 유아가 직접 소개하는 활동이 일어날 때를 중심으로 일화적 관찰 방법을 사용하였고, 연구 참여자인 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녹화하고 녹음하여 각 문장을 전사한 다음 전사규정에 따라서 수업의 질서나 수업의 시퀀스 등을 연구하는 미시 관찰방법을 사용하였다.

참여관찰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 주 2회 그림책을 활용한 대·소집단 활동이 일어날 때 즉 가정으로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유아들과 함께 가정연계

활동을 해 보는 15분 ~ 20분 정도의 관찰을 했으며, 또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기록하였고, 가족 활동지가 회수되어 유치원에서 가정의 활동 결과를 유아들이 발표하는 모습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와 동영상 촬영 진사본을 함께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 면담

면담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Maccoby & Maccoby, 1954)”,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Bogdan & Biklen, 1992)”를 뜻한다(김영천, 2012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비구조화된 면담과 대화로서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연구자는 방과후 과정반을 상대하고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리더십과 노련한 진행능력을 가지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과 정보를 얻을 수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아 대상으로 집단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부모 면담은 개별 면담의 방법으로 전화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아 면담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이 주를 이루었다. 대·소그룹 활동으로 진행되는 그림책 감상과 감상하고 나서 그림책 활용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집단 면담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대화로서의 면담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유아 한 명당 5분 정도로 이루어졌다.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사전, 사후활동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점

과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있으면 기록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유아와 함께 찾아보기 위해 유아의 생각을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에게는 그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 경험은 활동지에 기록된 부모-유아 간 상호작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도보로 귀가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대화로서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유치원 교육활동을 연계하여 가정에서 진행했을 때의 느낌이나 기분을 질문하면 유아는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이나 소그룹 활동 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유아들에게 유치원에서 경험한 활동을 가정에서 실시했을 때의 기분이나 느낌을 나누고, 가정에서 활동방법을 새롭게 창안해 오면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소개를 한 유아의 마음과 소개를 받은 유아의 마음을 질문을 통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면담의 내용은 현장노트에 기록하거나 녹화하였다.

(2) 부모 면담

부모 면담은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가정연계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가정으로 보내는 가족 활동지의 도움 정도, 가족 활동지를 하고 나서의 소감, 활동 소개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알아보았다. 주로 도보로 등·하원 하는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5분 정도 소요되었다. 유아를 데리러 왔을 때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고 어떤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지, 참여는 하고 있는지 등을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화 면담과 인터넷 면담도 이루어졌다. 홈페이지나 온라인 앱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공간에 올려진 글이나 댓글을 통해 학부모의 뜻을 전달받기도 했다. 면담을 통해 활동 결과에 대한 교사의 반

응을 보고 자극이 되어 다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저널 쓰기

저널 쓰기는 유아 교사들이 자신의 실천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의미하며 타인과의 담론을 통해 교수·학습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박은혜, 2002).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반성적 사고가 요구되므로 연구자는 저널 쓰기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안하여 자료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그림책을 가정과 연계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사전, 본, 사후활동을 분리하여 따로 기록하기도 하고 별다르게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본, 사후활동을 한꺼번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활동과정을 촬영한 녹화내용을 전사하기 전 저널을 먼저 기록하여 교사가 다시 한 번 진행했던 활동 과정을 돌아보고 미처 현장노트에 기록하거나 녹화자료로 남기지 못했던 교사의 생각이나 의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까지도 떠올리면서 기록하여 활용하고 촬영한 것을 전사하는데도 도움을 받았다.

4) 동영상 및 사진 촬영

동영상과 사진은 언어적 기술과 진술이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보다 근접하고 확실한 장면 증거,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관찰이 갖는 제한점을 동영상 촬영과 사진으로 보완하여 지나가 버린 자연사건과 현상을 기록하여 연구자가 다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이용숙,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도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중요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동영상과 사진 자료는 크게 교사가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가정에서 부모가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자료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그림책을 매개로 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면서 작품 뿐 아니라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학부모 상호작용(가정의 협조)과 감상하는 과정, 활동 진행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여 전사하고 사진자료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의 그림책 활용 결과물이나 활동의 변화 등에 대한 사진자료는 연구자의 지나간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기록한 영상자료와 사진자료는 전개에 따른 내용을 분석하여 총체적인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활동 양상과 갈등해결 방안으로서의 전략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재해석하였다. 연구자인 교사가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가정에서 부모가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으로 나누어 유아와 가정의 변화된 모습이나 과정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다음 활동 때 적용하고 보완하였다. 가정에서 촬영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온라인 앱을 활용하여 공유하였다.

5) 기타 관련 문서

유치원에서 진행된 교육활동을 가정으로 연계하기 위한 가족 활동지나 부모에게 전달하는 가정통신문 등의 지면 활동지를 활용하였다. 이는 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을 자세히 설명하여 가정에서 연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가정에서의 활동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총 세 번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진행되는 중, 진행이 마무리 될 무렵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행 과정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부모의 어려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였다.

5. 자료 분석

1차 실행, 2차 실행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전사 및 자료의 통합, 자료 분류 분석, 분류된 내용에 대한 해석, 반성적 사고 및 평가의 단계를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자료를 범주화하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 관찰과 이를 가정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고 안내하며 유치원과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방과후 과정반의 프로그램을 체계화 하는 현장노트와 심층면담 자료, 교사 저널, 연계 활동지, 매체를 활용한 자료이다. 수업관찰을 통하여 현장에서 약기한 것을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현장노트를 만들었다.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활동은 부모 면담과 설문지를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그림책 들려주기 과정의 계획, 개선방안과 동영상 및 사진, 활동에 대한 결과물, 유아들의 상호작용 및 관찰 기록지, 면담 및 대화 자료, 교사 저널 등의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정에서도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을 유아 주도적인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하여 사후 활동에 대한 결과물, 동영상 촬영을 통해 얻은 자료로 유아와 부모 사이의 상호작용을 녹화하여 전사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실행 과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사본과 교사 저널, 유아의 활동사진과 면담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에 제공할 연계 활동을 계획하는데 반영하였다. 또한 실행 과정을 통해 나타난 유아와 부모의 변화는 동영상과 사진 자료, 면담 자료, 설문지 등을 기초로 실행 전과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록하고 범주화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한 후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와 부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 과정

동산유치원 만 4세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운영방안을 살펴보고자 1차 실행에서는 가족 활동지를 중심으로 가정연계를 실행하였고, 2차 실행에서는 1차 실행 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SNS를 중심으로 한 가정연계를 실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차 실행: 가족 활동지를 중심으로 한 가정연계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의 유아는 대부분 맞벌이 가정의 유아였기 때문에 부모를 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유치원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1차 실행에서는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정연계의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인 지면 안내인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연계를 실행하였다. 지면으로 배부되는 가족 활동지는 단순하지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익숙한 것에 대한 친근함으로 가정의 참여를 높이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실천하였다. 교사와 유아가 교육활동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을 한 후 그림책 속에서

찾아낸 활동을 가정에서 심화·확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구자인 교사는 원활한 가정연계 방안을 위한 전략으로 매달 선정된 그림책을 유치원에서 유아들과 충분히 탐색하고 이야기 나눈 후 유치원에서만 읽고 즐기던 그림책을 가정으로 보내어 함께 공통의 주제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가족 활동지를 보낼 때에는 가정에서 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여 활동의 방법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횟수나 요일에 상관없이 유아들과 함께 활동한 후 흥미로워하고 반응이 좋은 활동에 대해 가족 활동지를 만들어서 가정에서의 연계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9월 한 달은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그림책을 충분히 탐색하고 이야기 나누는 경험을 함께 하기 위해 특별한 가족 활동지 없이 그 달의 그림책을 돌려보는 활동으로 가정연계를 접근하였다. 방과후 과정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림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림책을 가정으로 대여해줌으로써 공통의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갔다. 그림책 대여를 통해 그림책에 대해 익숙해 진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가족 활동지를 활용한 가정연계가 이루어졌다. 주 1회 가족 활동지를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아들의 반응이 좋았거나 흥미로워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주 2회 배부하여 활동이 심화·확장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실행기간 동안 총 3회의 가족 활동지를 배부하였다.

(1) 유치원과 가정에서 같은 그림책 공유하기

만 4세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은 교육과정반의 심화·확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매달 선정된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전개하였다. 연구가 시작되기 전 가정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연구의 실행계획 및 1차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배부하여 회수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느낀 교사의 저널 속에 나타난 글이다.

방과후 과정반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서는 교육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 잘 먹고 안전하게 잘 놀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월간교육계획안이 나가지만 교실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가정도 있다는 것을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교육과정반과 방과후 과정반에 교육적 관심의 비중도 다르다. 월간교육계획안을 신중하게 짜기 위해 애쓰는 교사의 수고가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수업에 대한 진지한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연구자 저널 2015. 10. 19.)

매달 그림책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수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림책의 제목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기관에 보낸 부모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관심을 보이는 것만큼 실제 교육활동 진행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가정도 있었다. 이에 1차 실행을 하기 전 가정연계를 위해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유치원에서 교육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림책에 대해 가정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2015년 9월 7일부터 2015년 9월 27일까지 이를 위해 그 달의 선정된 그림책을 가정에 대여하여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유치원에서 보고 있는 같은 그림책을 가정과 함께 봄으로써 공통의 화제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유아 간 소통 뿐 아니라 유치원과 가정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였다. 다음은 매달 선정된 그림책 중 9월의 그림책을 가정에서 돌려본 후 유아들과 나눈 대화이다.

교사: 선호는 어떻게 읽었어? 엄마가 읽어주셨어? 선호가 읽었어?

선호: 엄마가요!

교사: 엄마가 어떻게 읽어 주셨어?

선호: 예쁜 목소리로...

교사: 그러면 책 읽고 나서 또 뭐 했어?

책을 가지고 또 뭐했어? 아니면 책만 읽었어?

선호: 책만 읽었어요.

(중략)

강건: 밥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밥 먹고 식당에서 책 읽어주셨어요.

교사: 사람이 많지 않았어?

강건: 조금 많았어요.

교사: 그런데 엄마가 읽어주시는 책이 잘 들렸어?

강건: 네.

교사: 엄마가 어떻게 읽어주셨어?

강건: 그냥 읽어주셨어요.

(중략)

교사: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랑 엄마가 읽어주는 거랑 다른 점이 있었니? 아니면 같았니?

혜진: 같았어요.

엄마가 지선(혜진의 쌍둥이 언니)이는 싫다고 가버렸는데 책 읽고 이야기하다가 지선이와 와서 지선이라 아빠랑 엄마랑 가족이라 같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사: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했구나. 책만 읽은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나서 책 속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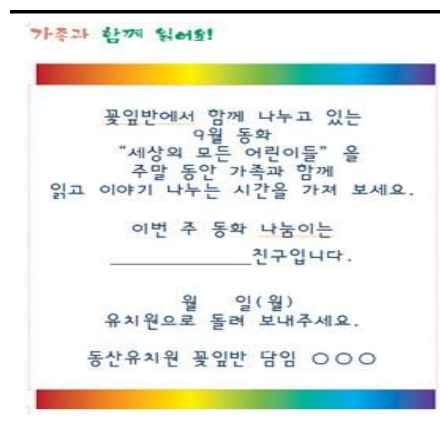
(면담 2015. 10. 12.)

유치원에서만 보고 읽던 그림책은 가정에서도 보고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식을 하러 나간 자리까지 가지고 가서 볼 만큼 유치

원에서 가지고 간 그림책은 공통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었다.

유아 자신이 가정으로 그림책을 대여해 간 다음 날은 지내고 와서 더욱 왕성하게 부모와 나눈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풍성하게 표현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책을 가정으로 보낼 때에는 그림책의 앞표지에 그림 1과 같은 안내문을 붙여 보냈다.



[그림 1] 그림책 대여를 위한 안내문

위의 안내문과 함께 보낸 그 달의 그림책은 대부분 정해진 날짜에 유치원으로 돌려보내졌고 이런 그림책 대여는 유치원과 가정이 같은 그림책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유아가 가정으로 빌려간 그림책이 유치원으로 돌려보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가족이 함께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당황스러운 상황도 만들어졌다.

우리가 채구성한 그림책을 집으로 대여해 갔다가 책을 찢은 예은이는 빌려간 책을 조심스럽게 보여주며 이야기한다.

교사: 책을 어떻게 보는 데 책을 찢었어? 동생이?
 예은: 내가 엄마랑 책을 보고 있는데 동생이 다 본 줄 알고 책을 옆으로 넘기
 다가...
 교사: 예은이는 책 가져가서 어떻게 읽었어? 예은이가 읽었어? 엄마가 읽어
 주셨어?
 예은: 엄마가 읽어 주셨어요.
 교사: 엄마가 읽어 주셨어! 왜 예은이가 읽지 않았어?
 예은: 읽기가 힘들어서...
 교사: 글씨가 너무 많았구나! 그림책에.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셨어?
 예은: 네.

(면담 2015. 10. 12.)

유치원에서는 대그룹 중심의 그림책 보기였다면 가정에서는 유아와 엄마 또
 는 유아와 아빠가 1:1의 관계에서 읽거나 보는 것이 가능했으며 그런 기회를
 통해 유치원에서 볼 수 없거나 느끼지 못했던 것을 가정의 부모를 통해 느끼
 고 가정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은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통해 다양하게
 그림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 달의 그림책이 어떤 주제의 그림책이냐에 따라 관심사가 달라지고 화
 제가 되었다. 유치원에서 선정된 그림책과 관련한 내용의 그림책을 집에서
 도 찾아보고, 찾아본 책을 유치원에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의를 보였다. 다음은 관련 책을 가지고 온 유아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교사: 혜진이가 집에서 찾아본 가을 책을 가져왔어. 혜진이 몇 권 갖고 왔
 다고?
 혜진: 다섯 권!
 교사: 혜진이가 왜 이 책을 가져 왔는지 하나씩 소개해 줄 수 있어?
 혜진: 네.

교사: 제목부터, 처음 보여주는 책부터 소개해 주세요. 이게 뭐야? 친구들 보여 주면서..

혜진: 이것은 “풍성한 가을 채소밭”.

교사: 왜 이 책을 갖고 오게 됐어?

혜진: 채소가 많으니까요.

교사: 가을 채소에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까.

혜진: “열두 달 우리 음식”은 여기 별 포스트잇 붙여 있는데 부터 가을 음식이 나와요.

교사: 선생님은 왜 책에 별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나 했더니 가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곳에 스티커를 붙여주었구나.

혜진: (밤송이는 어떻게 저절로 떨어질까요? 라는 제목을 밤송이만 읽고 더듬거리서 교사가 대신 제목을 읽어줌)

교사: 이 책은 어떻게 가지고 오게 됐니?

혜진: 가을 동물들이 많아서요.

교사: 가을 동물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

혜진: 네.

교사: “달팽이야 너는 왜 집을 지고 다니니?” 이 책은 왜 소개해 주고 싶었어?

혜진: 벼가 나와서...

교사: 벼가 익으면 왜 고개를 숙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구나. 마지막 책은?

혜진: “채소와 과일”.

교사: 이 책은 친구들한테 왜 소개해 주고 싶었어?

혜진: 이것도 가을 채순데 조금 다른 채소가 있어요.

교사: 이렇게 찾은 거는 엄마가 찾아주셨어? 혜진이가 찾았어?

혜진: 제가요.

교사: 혜인이가 혼자 찾았어?

혜진: 네.

(중략)

교사: 혜진이가 가져온 책을 집으로 가져가서 읽었으면 좋겠어. 이 책을 혼자 읽지 않고 누구랑 같이 읽는 거야?

유아: 엄마, 아빠

교사: 책은 다섯 권 있고, 우리는 여기 몇 명 있지?

유아: 12명.

교사: 그래서 나누어서 빌려 갈 건데 오늘 빌려 주면 목요일 날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다음 친구가 빌려 갈 거야. 자기가 빌려 가고 싶은 책이 있는 친구에게 빌려주자.

장간: 한 친구가 하나에 물리면 다른 친구는 못 보잖아요?

교사: 그렇지! 하나에 물리면 안 되겠지? 친구가 책을 선택하면 꼭 그 책만 읽지 않고 가을에 관련된 다른 책을 골라가는 거야? 어때? 괜찮니?

유아: 네.

교사: 책을 빌리간 후 가족과 함께 책을 나눈 소감을 글과 그림으로 남겨와 보는 거야.

(면담 2015. 10. 13.)

유치원에 있는 그림책을 돌려보는 것 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관련된 그림책을 빌려주고 빌려보며 의미 있는 그림책 대여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관심 안에 그림책을 담고 간직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달 그달의 그림책을 마무리하면서 책의 주인공을 꽃잎반 친구들로 바꾸어 보는 재구성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 그림책을 완성을 해야 돼. 10월의 동화 주인공이 현수가 아닌 시무로 바꿨지?

(꽃잎반 친구들 사진으로 바뀐 동화를 그림 장면을 보여주며 읽어준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책을 완성하지 못한 게 지난번에 할아버지를 하겠

다고 하는 친구가 없어서... 봐! 할아버지 부분에 얼굴이 비어 있지?

강건: 그냥 원래대로 하면 어때요?

교사: 그런데 이게 사랑반 동화니까 사랑반 친구들이 나오면 좋을 거라 생각 했거든.

너희들 중에 역할을 맡지 않은 친구가 있니? 하은이, 지섭이 안 맡았니?
(하은이와 지섭에게 묻는다. 지섭이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은이는 승낙을 해서) 우리가 여잔데 남자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어디서는 될 수 있어?

유아: 동화 속.

혜진: 나는 강아지 됐는데.

교사: 그래, 맞아.

(미술영역에서 완성되지 않은 그림책 사진을 유아와 나누어 오리고 붙이는 작업을 함께 함.)

(면담 2015. 10. 30.)

꽃잎반 유아들은 단순히 보는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그림책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꽃잎반 친구들 사진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을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대여해 가고 그림책을 가정에서 함께 나누며 읽어주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교사: 지호가 '가을이 좋아.' 우리가 주인공인 책 빌려갔었는데 누가 읽어 주셨니?

지호: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읽어주셨어요.

교사: 유치원에서 읽는 거랑 집에서 읽는 거랑 또 어떻게 달랐어?

지호: 아빠가 읽어주다가 자서 할머니한테 읽어 달라고 해서 읽어주는데 할머니가 끝까지 읽어주셨고 엄마는 일 다 한 다음에 책 읽어주셨어요.

교사: 할머니가 책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 우리가 주인공인 책을 보시면

서 뭐라고 하셨어?

지호: 친구들이 다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면담 2015. 10. 28.)

꽃잎반 친구들이 주인공이 된 그림책을 가족과 함께 보며 그림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꽃잎반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그림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연계 활동

그림책 대어를 통해 방과후 과정반에서 교육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림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단순히 그림책을 보는 활동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유치원에서 그림책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으로 전개하는 것을 가족 활동지를 통해 가정에서도 교육활동으로 실천하였다. 다음은 가정에서 그림책의 표지를 보고 그림책 속 이야기를 추측해 보는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 나눈 가정의 대화이다.

엄마: (교사가 보내 준 그림책 표지가 인쇄된 가족 활동지를 보여주며) 사람들이 무얼 하고 있니?

지연: 추수.

엄마: 추수는 언제 하는 거지?

지연: 가을이 돼서 곡식이 다 익었을 때 곡식을 따는 거예요.

엄마: 표지를 보고 설명해 보세요.

지연: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고 잠자리 세 마리가 하늘 위로 날고 있어요.

엄마: 등장인물은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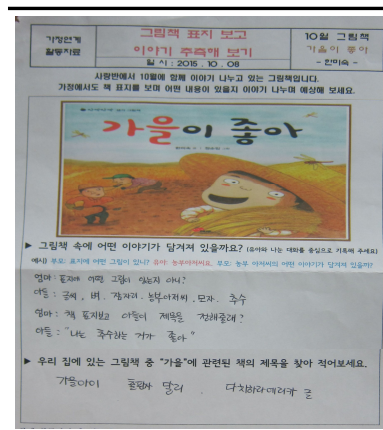
지연: 밀짚모자 쓴 아이, 현수. 초록색 모자 아저씨는 옆집 아저씨, 밀짚모자 쓴 아저씨는 현수네 아빠.

엄마: 이 책 지안이가 읽었으니까 내용을 설명해 줄래?

지언: 현수가 할머니 댁에 가는 길에 곡식들이 노랗게 된 들판도 보고 할머니 댁에 석류나무도 봤어요. 그리고 석류를 먹고 야채도 주셨는데. 석류만 먹겠다고 했어요. 호박죽도 먹고 바람개비도 만들면서 나중에 풍차도 만들겠다고 했어요. 아빠랑 나가서 “날씨가 좋아요.”라고 말하고 할아버지, 아빠와 추수를 도와 드렸어요. 아빠가 “도시가 더 좋니? 시골집이 좋니?”라고 물었는데 큰 목소리로 “도시가, 가을이 좋아요.”라고 말했어요.

(가족 활동지 2015. 10. 8.)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엄마와 이야기하며 아이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연결 지어 아이는 확장된 놀이를 할 수 있게 되고, 엄마는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가격이 비싸거나 외형이 화려하고 복잡한 놀잇감은 아니지만 그림책의 표지 한 장으로도 충분히 유아와 엄마가 대화를 나누며 놀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엄마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며 아이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는 아이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해 준 가족 활동지의 예이다.



[그림 2] 진시무 가족의 가족 활동지

그림책의 표지를 보고 이야기를 추측해 보고 추측한 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제목을 생각해 보며 가족이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에게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생각을 알아보고 아이의 표현에도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은 그림책 장면을 가지고 퍼즐 놀이를 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가족 활동지에 기록된 유아와 엄마의 대화이다.

그림책 장면을 다양하게 준비해 주고 유아들은 이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장면을 가정으로 가져가서 놀이할 수 있도록 했다.

엄마: 몇 조각으로 만들고 싶니? 10조각으로 해 볼까?

하윤: 10조각으로 해 볼래요(말을 한 후 자른다).

엄마: 와! 다양한 모양으로 잘랐구나. 엄마 네모 모양으로 생각했는데...

하윤: 유치원에 이런 모양 퍼즐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졌네! 다음엔 진짜 10조각으로 해 봐야지.

(가족 활동지 2015. 10. 21.)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퍼즐 놀이지만 유치원에서 놀이하던 그림책의 그림이 퍼즐 장면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부모와 직접 조각을 내어 맞추어 보는 과정은 나만의 퍼즐 놀잇감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이었다.

‘그림책 장면 연결하여 이야기 짓기’ 활동은 그림책 속의 장면 중 마음에 드는 장면을 골라서 이야기와 제목을 다시 지어보며 작가가 되어 보는 경험을 하였다. 아직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들을 유치원에서 교사가 1:1로 그림책 장면을 연결하고 이야기를 지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가정과 연계하여 가족 활동지를 통해 부모와 함께 하며 이야기를 구성해 보면서 대화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의 놀이를 확장해 가는 시간을 통해 유치원

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소개의 시간도 되었다.

2)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평가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평가와 2차 실행방안에 대한 모색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 까지 이루어졌다. 1차 실행에 대한 평가 결과 가정에서는 유치원과의 연계가 자녀를 이해하고 교육활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없는 시간을 내서 결과물을 유치원으로 보낸다는 것은 부모의 부담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유치원에서의 활동 중 흥미로운 활동을 가정에 연계하기 위해 비정기적인 가족 활동지를 필요할 때마다 배부하였는데 이는 정기적이지 않는 배부 요일과 많으면 주 2회의 배부되는 가족 활동지는 과제를 제출해야만 하는 가정의 부모 입장에서는 언젠가 꼭 해서 제출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숙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자율적인 참여를 강조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유아들은 참여한 유아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그 소외의 감정을 가정의 부모에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유치원에서 연계 활동으로 소개되는 활동이 정적이고 기록에 의존하는 활동이어서 유아와 부모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바쁜 생활 속에서 지루하고 형식적인, 생활과 무관한 활동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족한 시간과 관심

방과후 과정만 부모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활동을 지원해 줄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가족 활동지를 못한

유아의 대부분은 아빠, 엄마가 시간이 없어서 활동을 못했다는 친구들이 많았다. 유아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또 엄마와 나눈 대화 속에서 부모, 특히 엄마의 일상이 바빠 시간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지호: 엄마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빠는 회사가고 엄마는 요리 중이었어요.

은빈: 엄마랑 아빠랑 늦게 왔어요.

은준: 혼자 했어요.

교사: 엄마 아빠가 바쁘셔서 혼자 했어?

은준: 네.

교사: 은준이가 한 거 혼자만 봤어? 가족들 보여 드렸어?

은준: (대답이 없다.)

교사: 애들아 혼자 하는 게 나쁜 걸까?

유아: 아니요.

교사: 그건 아니야. 혼자 했으면 그걸 엄마 아빠...

은준: 치웠어요.

교사: 보여드리고 치웠어? 안 보여드리고 치웠어?

은준: (대답이 없다.)

예은: 엄마 아빠가 아빠는 저희 집에 금붕어가 있어서 금붕어 닦아주느라고 바쁘고 엄마는 금붕어 안에 있는 돌멩이 이런 거 닦아주느라고 바쁘어요.

지연: 시간이 없었어요.

교사: 누가 바빴어?

지연: 아빠는 일찍 회사가고 엄마는 집에 할 일이 많았어요.

교사: 토요일이나 주일날도 할 일이 많으셨어?

지연: (대답이 없다.)

교사: 지연이 혼자서 할 수 있지? 엄마 아빠 바쁘실 때는 너희가 만들어서 아빠 엄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중략)

교사: 형이랑 누나 있었잖아?

시무: 누나는 공부하고 형은 주일날 엄마가 나무 블록 사 줘서 나무 블록하고.

교사: 애들아 엄마 아빠랑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잠자기 5분전에만
에라도 시간 내 주세요. 해서 같이 하는 시간 만들어 보자.

(면담 2015. 10. 29.)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있었다.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바빴어요.” 라는 말이다. 아이들을 돕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말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실상 시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겠지만 아이와 함께 할 단 5분, 10분도 낼 수 없다는 것은 관심 또한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다음은 맞벌이 가정으로 시간을 내기 힘든 가정의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이다.

교사: 가정 연계하는 것이 힘드시죠?

수지 엄마: 네 요즘 출장이 많아서요. 그렇지만 주신 활동은 밀려서라도 할
려고 해요.

교사: 제일 힘드신 점이 있다면?

수지 엄마: 시간이 없다는 거...

교사: 수지가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회사 갔다 요리하고, 아빠는 늦으신다고요.

수지 엄마: (웃음)

교사: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 소개해 드린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지 엄마: 수지가 유치원에서 했던 활동 잘 말해주더라고요.

(면담 2015. 10. 28.)

시간이 없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맞이하기도 힘든, 일하는 엄마의 고충이 담긴 대화이다. 수지 엄마의 경우 소개된 활동을 그 주에 하지

못하면 다음 주라도 해 보려는 의지와 관심을 보인 좋은 예이기는 하나 대다수 부모의 시간 뿐 아니라 관심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교사: 가정 연계하는 거 어떠세요?

선호 엄마: (눈을 맞추지 못하고 웃는다.)

교사: 시간이 없으시죠?

선호 엄마: 네.

교사: 선호가 관심은 많은데...

(면담 2015. 10. 15.)

선호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안타까운 가정이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지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가정연계 활동을 하려면 가끔 가정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재료가 필요할 때도 있다. 다음은 가정연계 활동으로 요리 활동은 소개해 주었지만 재료가 없어서 활동을 지지해 주지 못한 가정의 예이다.

은준이가 “우리 집에 빵이 없어서 구름빵 못 만들었어요. 만들고 싶은데” 했던 말이 기억나서 어머님께 이야기 했더니 “저희 집에는 빵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은준이는 선생님이 소개해 주는 활동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식빵도 빵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면담 2015. 11. 17.)

마트나 빵집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식빵이지만 시간이 없어서인지 관심이 없어서인지 준비해 주지 못하는 부모로 인해 활동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유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화였다.

(2) 한 장의 작은 종이가 마음으로는 진지처럼 느껴지는 숙제

연구자가 가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가족 활동지였다. 주말에 보내고 주중에 돌아오는 결과물을 보고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였는데 가정에서는 가족 활동지 자체가 숙제가 되어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다.

교사: 책 만드는 데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 주셨어?

예서: 엄마요.

교사: 아빠께 같이 하자고 하니까 해 주셨니?

예서: 싫다고 했어요.

교사: 그런데 어떻게 사진 속에 아빠가 나오셨어?

예서: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

(면담 2015. 10. 30.)

강건: 아빠는 숙제라고 해야지만 같이 해요. 하기 싫다고 하다가도 유치원에서 내 준 숙제야 하면 해요.

(면담 2015. 10. 12.)

집에서 일로 너무 바빠서 유치원에서 숙제 같은 거 없이 주말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피곤하거든요. 피곤한데 은준이는 하자고 하고...

(면담 2015. 10. 22.)

엄마는 유치원에 가져가야 할 결과물 때문에 하기 싫다는 아빠에게 강요를 했고, 강요를 받은 아빠는 딸의 숙제이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했다. 피곤하고 지친 아빠에게 무언가 종이를 내 놓으며 같이 하자고 하는 아이 앞에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하는 숙제라는 사실이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아닌

수천 배의 무게로 느껴졌을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많은 양의 업무로 바빴던 하루를 가정으로 돌아와 휴식을 얻으려는 엄마, 아빠에게 가족 활동지는 집에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업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욕심이 많은 혜진이는 유치원에서 소개해 주는 가정연계는 모두 해 보고 싶어 했다. 혜진이의 의욕은 엄마에게 큰 짐이 되었고, 꽃감 만드는 도구와 활동지를 다시 유치원으로 가지고 오시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셨던 부모와의 대화이다.

혜진이가 유치원에서 하라고 했다고 꼭 해야 한다고 해서 꽃감 도구를 대여했는데... 죄송해요. 다음에 할게요.

(면담 2015. 11. 9.)

유치원에서 안내한 유익한 활동이지만 하지 못한 부모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다. 유치원과 아이 사이에서 엄마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

(3) 연계 활동을 한 유아들 속에 연계 활동을 하지 못한 소외된 유아들

주말을 지내고 온 월요일이나 가족 활동지가 배부된 다음 날의 경우 교육과정반 시간부터 연구자인 교사를 찾는 친구들이 있었다. 가족과 함께 한 활동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등원하는 길에 가족 활동지를 가방에서 꺼내어 전달하였다. 방과후 과정반 시간이 되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면 앉아 있는 모습도 위풍당당하고, 이름이 불리어지면 친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앞으로 나섰다. 앞으로 나선 친구는 자신이 가져온 활동지를 짊어가며 가족과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나누었다.

유치원에서 대여 해 준 꽃감 행거를 가지고 가서 건우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꽃감을 보고

교사: (봉투에 있는 꽃감을 꺼내 보이며) 와 진짜 예쁘게 됐다. 누가 가지고 왔는지 알아?

유아: 강건이요.

교사: 강건이가 소개해 줘. 어디서 난 꽃감이에요?

강건: 집에서 샀어요.

교사: 집에서 샀어? 건우가 만든 거야? 산 거야?

강건: 사 갖고 와서 말린 거예요.

교사: 꽃감을 샀어? 감을 샀어?

강건: 감.

교사: 모양과 색깔이 어때? 곰팡이가 나거나 한 부분도 없고 10개 꽃감 했어? 다 이런 모양이 됐어?

강건: 아니요.

교사: 하고 있어?

강건: 네.

강건이가 들고 다니며 냄새 맡게 한다.

교사: 어디다 어떻게 말렸어?

강건: 빨래 말리는 옷걸이에 걸어 베란다에 내놨어요.

교사: 진짜 잘 말랐지!

혜진: 어떻게 말린 거야?

교사: 어떤 곳에 보관했어?

강건: 옷 뒤에.

(면담 2015. 11. 16.)

감을 말려서 꽃감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강건이는 꽃감 행거를 대여해 간

후 한참 소식이 없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리던 꽃잎반 친구들에게 꽃감을 가지고 온 강건이는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강건이를 따라다니며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언제 더 가지고 올 것인지 물어보는 친구들에 둘러싸인 강건이는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건이가 나누어 준 꽃감을 먹은 친구들은 놀이 시간에도 꽃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유아들.

지호: 달콤하다.

은준: 홍시 맛도 나. 그지?

사무: 꿀맛, 시원한 맛 모두 나는데

은빈: 너무 맛있는 맛이다.

(관찰 2015. 11. 16.)

사서 먹었던 꽃감을 친구가 직접 만들어 와서 먹어보는 것은 유아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집에서 만들었는데도 파는 꽃감과 모양도 같고 맛은 더 좋은 것에 모두 놀랐다. 꽃감 만드는 것을 소개한 강건이는 자랑스러웠지만 그 외의 다른 유아들이 맛을 보고 나서 친구들끼리 이야기 하는 가운데 기쁨보다는 부러움을 가진 친구들은 소외되어 있었다..

교사가 구두로 질문거리를 주고 이에 대해 알아오기로 한 유아들이 다음날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이다.

감이 익으면 따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실제로 탄 감을 집으로 가져가서 열매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오기로 하였다. 유아들끼리 나누는 대화이다.

은빈: 강건이가 아까 열매가 왜 떨어지는 지 집에서 알아왔다고 했지?

왜 열매가 떨어진대?

강건: 바람 때문에.

은빈: 바람 때문에 그렇대? 오직 바람 때문에?

지호: 아니.

혜진: 엄마가 말해줬는데 새가 그 과일을 떨어뜨린대.

선호: 어 비가 와서 열매를 떨어뜨린대요.

(관찰 2015. 10. 15.)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또 알아온 것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친구들 속에 관심은 있지만 알아 온 이야기 거리가 없어 오고 가는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 유아들을 보면서 연구자는 또 다른 고민과 함께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

배부된 활동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활동이 소개가 되었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다. 한 두 번은 넘어갈 수 있으나 매 주나만 이야기 거리가 없다는 것에 의기소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런 모습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유아의 마음을 엄마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지언 엄마: 친구들이 했던 거 와서 말을 하긴 하는데...

교사: 친구들이 했던 것에 대해 말을 전달을 하네요.

지언 엄마: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잘 참여를 못해서인지 이제 같이 해 달라는 말도 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해 주고 싶은데 주말에 어디라도 다녀오면 할 시간이 없고.

교사: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지언 엄마: 같이 못해주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면담 2015. 10. 30.)

자율적인 참여이지만 해 주지 못해 미안한 부모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열심히 활동한 친구를 칭찬해 준다는 것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들에게는 소외감을 조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이 활동지를 보고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말 내 챙겨서 활동하지 않게 되어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설문조사 2015. 10. 21.)

가족 활동지가 주로 금요일에 배부가 돼요. 그리고 아이는 가지고 온 활동지를 금요일에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엄마인 저는 금요일이 가장 바쁜 업무 날입니다.

(설문조사 2015. 10. 21.)

연계지 배부나 결과물 회수 방법에 있어 유치원 중심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일상생활과 밀접한 활동의 필요성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노출되어 있는 유아에게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연계 활동이 가정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다.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형식적인 연계활동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가정에서 다른 놀이나 학습 시간을 갖고 있어서 여유 시간이 많지 않아 활동지를 나누어 주실 때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면담 2015. 10. 23.)

그림책을 보고 그림책과 연관하여 활동을 찾아보니 다소 정적이고 지면을 이용하는 활동으로 치우쳐져서 ‘만 4세 연령이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 활동보다 부모 위주의 활동이 되기 쉬웠겠다.’ 라는 반성을 하였다. 자녀와 나는 상호작용을 글로 남기거나 사진을 찍어 남겨달라는 요청이 생활 속에서 실행하기 쉽지 않기에 생활 속에서 실행하고 피드백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했다.

교사: 하은이는 동화책 속에 나왔던 현수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서 갔었지(가정에서 해 온 활동지를 보며)? 하연이도 여기 보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전화를 했어요? 직접 갔다 왔어요?

하은: 직접 갔다 왔어요.

교사: 원래 엄마가 직접 갈려고 했었어? 아니면 이 동화를 읽고 가게 됐어?

하은: 엄마가 가자고 하셨어요. 아직 생신이 안됐는데 갔다 왔어요. 그 전날 왕관 머리띠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교사: 할아버지 할머니 댁 다녀온 소감이 어땠어?

하은: 할아버지 댁에 가서 사촌 동생도 만나고 왔어요.

교사: 다녀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연: 아라랑 같이 논 거요.

교사: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해서 가장 좋았던 점?

하은: (머뭇거리더니) 기억이 안나요.

(면담 2015. 10. 30.)

그림책 속 현수처럼 하은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침 가정연계를 소개한 그 주가 할머니 생신을 맞아 찾아뵙기로 했는데 그림책 속 현수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그림책 속 경험을 직접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사: 강건이는 동화 읽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직접 찾아갔어? 아니면 전화를 했어?

강건: 전화요.

교사: 전화를 했어! 그럼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어?

강건: 아니요.

교사: 할머니랑 전화하면서 어떤 얘기했어?

강건: 저녁 먹었다고 물어봤어요.

교사: 할머니가 물어보셨어?

강건: 아니요.

교사: 네가 할머니한테 여쭙봤어. 그리고 또 어떤 얘기했어?

강건: 석류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교사: 석류 먹었다고? 석류 먹었다고 할머니한테 자랑했구나.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강건: 맛있겠다고...

교사: 맛있었다고. 다음에는 할머니 댁 갈 때 강건이가 먹었던 석류 사다 드리는 것도 좋겠다. 할머니랑 전화하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

강건: 기분이 좋았어요.

교사: 강건이는 할머니랑 전화하고 나서 왜 기분이 좋았을까?

강건: (한동안 대답 없음 교사 다시 물음) 할머니 보고 싶어서.

교사: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직접 가기는 멀었는데 전화를 해서 기분이 좋아졌구나.

강건: 네.

(면담 2015. 10. 30.)

교사: 할머니랑 어떤 얘기했어?

혜진: 기억이 안 나요.

교사: (활동지를 읽어주며 힌트를 줌.) 할머니랑 전화하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

혜진: 기분이 좋았고 눈물 날 것 같았어요.

교사: 왜 할머니랑 전화하는 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은빈: 너무 기쁘니까?
교사: 아 너무 기뻐서 애들아 눈물은 너무 슬플 때도 나지만 기쁠 때도 나는 거니?
유아: 네.
교사: 그럼 할머니의 기분은 어땠을까?
혜진: 할머니도 좋았을 것 같아요.

(면담 2015. 10. 30.)

교사: 지호는 누구랑 전화했어?
지호: 아빠가 할머니한테 조금 전화하다가 아빠가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하고 엄마가 기도하라고 해서 할머니한테 기도해 주고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했어요.
교사: 할머니한테 어떤 기도해 드렸는데?
지호: 할머니가 감기가 아파서 감기가 너무 심하게 해서 빨리 낫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교사: 몸이 아프신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드리고 찬양도 해 드렸어.
지호: (할머니께 들려드렸던 세상을 창조하시고 찬양도 불러준다.)
교사: 선생님이 할머니였다면 지호가 들려준 찬양을 듣고 “아이고 아파라” 하다가도 다 나올 것 같은데.

(면담 2015. 10. 30.)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부담도 없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화 통화로 멀리 떨어져 계신 할머니와 이야기도 유치원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로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설문조사 2015. 11. 24.)

유치원과 다른 환경인 가정에서 생활과 동떨어진 활동을 제시하여 진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될 수 없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 가정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함께 활동이 가능하며, 특별한 준비물 없이도 가능한 생활 속 교육활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도 할 수 있는 활동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3) 2차 실행: SNS를 중심으로 한 가정연계

2차 실행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평가는 2016년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이루어졌다.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의 특성상 방학기간은 혼합연령으로 반 구성이 되어 정상적인 꽃잎반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없어 방학 기간은 연구기간에서 제외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방과후 과정반의 가정연계 활성화를 위해 1차 실행에서는 종이를 배부되는 가족 활동지에만 의존하던 것을 기존의 유치원 홈페이지와 밴드라는 온라인상의 앱을 이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가정연계를 진행하였다. 또한 유치원에서 그림책을 매개로 활동을 한 후 흥미로울 때마다 가족 활동지를 배부하던 것에서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가족 활동지를 배부하였다. 유아의 흥미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배부하던 가족 활동지를 주 2회를 2주 정도 진행하였다. 맞벌이 가정에 주 2회의 가족 활동지는 연계의 유익보다는 부모가 느끼는 부담이 더 커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부모의 부담은 줄이면서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가 즐거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1회 금요일에 가족 활동지를 배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가족 활동지를 종이를 배부함과 동시에 밴드에도 올려 종이 활동지가 없어도 온라인상으로 가정연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에서의 활동 결과를 가정의 부모가 유치원으로 보내면 이를 교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앱을 활용하여 가정에서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결과를 올려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해 나갔다.

(1) 부족함 속에 풍성함 찾기

SNS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고, 사용하는 SNS의 수량도 많아지고 있다.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처음에는 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를 확대하여 꽃잎반의 밴드를 만들어 활동한 결과를 직접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물론 온라인상의 가정연계가 참여 가정을 눈에 뵈는 정도로 증가시키지는 않았지만 바로 바로 올리고 즉시 확인하는 가운데 한층 활동에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활동의 결과를 올리는 가정은 적어도, 온라인상의 활동 결과에 대해 나누는 가정은 많아졌다. 밴드라는 공간을 활용하기 전 이미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 유아들에게 적극 홍보하면서 이런 곳에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 선생님이 이 컴퓨터 안에 동산유치원을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지 알아?

혜진: 컴퓨터로 동산유치원을...

교사: 맞아. 컴퓨터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동산유치원을 치면 돼 “동산유치원” 쳐 저 있는 거 보여?

유아: 네.

강건: 엄마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교사: 엄마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들어가면 동산유치원이 떠.
(주소에 더블클릭)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야. 그러
면 여기에 선생님 이름이 뜨지? 여기에 꽃잎반 이름 있나 찾아볼까?
여기 꽃잎반 있지요. 여기 꽃잎반 선생님이 편지를 써 놓았어. 읽어
본 적 있어? 여기 보면 엄마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어. (보여준다.)

혜진: (빌려간 책을 말하며) 저 오늘 책 안가지고 왔어요.

교사: 그래서 안 갖고 왔으니까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동화 같이
보고 싶지? 동화책이 없어도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

강건: 컴퓨터..

교사: 그래. 컴퓨터에 사진을 찍어 동화를 올려놨어.

혜진: 다른 책도 올려놨어요?

교사: 보고 싶어?

유아: 네.

교사: 동화를 올려놓았으니까 엄마가 보고 기분이 어땠는지 알고 싶잖아?
그러면 여기에 쓸 수도 있어. 여기에 편지를 쓸 수 있어 “꽃잎반 부
모님들 지금 꽃잎반 친구들과 홈페이지로 동화를 봤어요. 주말에 가
족과 함께 보세요” 라고 썼으니 너희들이 집에 가서 “여기에 글 좀
남겨 주세요.” 하는 거야 엄마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겠어?

강건: 아니요.

교사: 먼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맨 위에 사랑 들어가서 동화책 보고 댓글
이라고 맨 곳에 글을 남겨 주는 거야.

여기에 꽃잎반 엄마 중에 글을 남겨 주신 분이 계셔서 한 번 보자.

자!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에 올려놨는데 편지 남겨 준 사람 있어? 없
어? 답장이 없네.

강건: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 줬잖아요?

교사: 아! 얘기를 안 해 줘서 못 올린 거였어?

유아: 네.

(교사가 편지 글 쓴 곳을 찾아본다. 댓글이 달린 곳이 많이 없어 겨우 찾음)

(면담 2015. 11. 6.)

홈페이지라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공간이어서 교사가 활동사진을 올려놓으면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의 댓글이 달리는 공간이었다. 유아 스스로도 이런 공간을 부모와 함께 들어 가 본 적이 없어서인지 낮설어 하며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 섞인 말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밴드를 개설하여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유아의 활동사진을 자유롭게 확인하고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교사: 하은이가 동시 낭독하는 거 밴드에 올려놓은 거 봤니?

수지: 네. 봤어요.

교사: 수지, 언제 봤어?

수지: 어저께요.

교사: 엄마랑 하은이처럼 활동하는 거 해 보고 싶어?

하은: 해 봤는데 어려워요.

엄마: 동시가 길어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하면 돼.

혜진: 가족이랑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교사: 왜?

혜진: 가족이랑 해야 하는 데 막대기 있고 여기 핸드폰 켜는데 이렇게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교사: 그럼 누가 찍어주면 되잖아? 엄마나 아빠나?

강건: 우리 엄마가 하는 거 빌려줄까? 전 사진 하트만 봤어요(꽃잎반 밴드 대문이 하트임).

교사: 초대를 했는데 승낙하지 않은 사람 지언, 지호 엄마께 “밴드에 가입해주세요.” 하고 말씀 드려. 밴드에 들어가면 사진 볼 수 있다고 알려

드려.

강술: 근데 엄마랑 저랑 오늘 아침에 했는데 동영상도 길어서 안됐다고 핸드폰으로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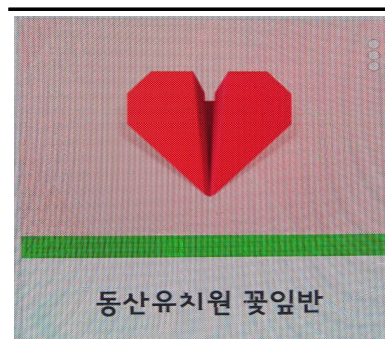
교사: 그럼 다 찍지 말고 중간에 짧고 간단하게 찍어서 보내도 된다고 해. 선생님에게 보내도 되고 직접 올리셔도 된다고.

강건: 저 홈페이지에 양지섭한테 편지 썼어요.

교사: 그럼 들어가서 한 번 보자. 선생님도 홈페이지에 잘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너희들이랑 얘기하면서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게 됐다.

(면담 2015.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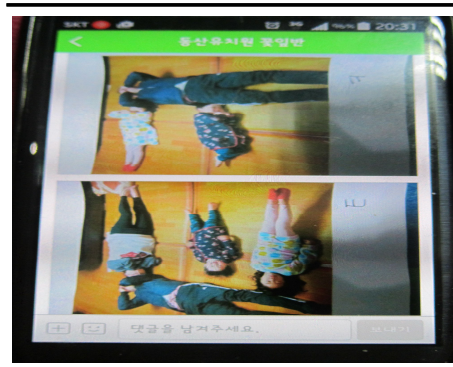
그림 3은 온라인상 앱에 만들어 놓은 꽃잎반의 공간인 밴드 화면이다.



[그림 3] 온라인상 소통의 창고가 된 밴드

참여하는 가정이 부족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 소통하는 횟수나 방법이 활발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밴드에 올려놓은 동영상들 통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나눌 수 있었고,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올려놓은 동영상이나 글을 보면서 꽃잎반의 교육과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 가족 모두가 동영상에 참여하지 않지만 여러 방법으로, 예컨대 출연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촬영을 하는 등 각자 필요한 몫을 채워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협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밴드에 올려진 결과물이나 글

을 온라인상으로 보며 그에 대한 댓글도 남기며 가정과 가정 간의 소통의 창구 역할도 하였다. 그림 4는 가정연계 활동으로 실행한 신체표현을 온라인 공간에 직접 올린 사진의 예이다.



[그림 4] 그림책 속 자음을 가족과 함께 몸으로 만든 사진과 댓글

가족이 함께 한 활동을 온라인상에 올리면 이에 대한 댓글이 적거나 없어도 얼마 정도의 가정에서 확인하고 보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연계 활동에 참여하는 가정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가정연계 활동에 참여하는 가정이 관심을 가지는 반응은 확인할 수 있었다.

(2) 마음으로 느끼는 숙제라는 생각 떨쳐버리기

‘구두로 알아보자는 작은 약속에도 유심히 귀 기울이는 유아들에게 숙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유아들이 숙제라고 느끼지 않아야 가정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부담감에 교사는 매 번 활동을 소개하며 시간이 날 때, 가족이 원할 때 등 갖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을 때 진행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전달하였다.

교사: 어제 책 만들기 배웠지? 어제 책 만들기 배운 것을 어디 가서 해 봤
어? 집에 가서 해 봤지?

유아: 네.

교사: 집에 책 만들기를 가져가니까 뭐라고 하셔?

강건: 뭐냐고 물어봤어요.

교사: 이게 뭐냐고 물어보셨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강건: 숙제가 아니고 엄마랑 같이하는 거라고요.

교사: 뭐라고 했다고?

강건: 숙제가 아니고 우리가 엄마랑 같이 노는 거라고 했어요.

혜진: 저도 그랬어요.

교사: 그래 유치원에서 놀이하던 것을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해 보는 거야.
이것은 숙제가 아니야. 안 해 왔다고 “왜 안 해 왔어?”라고 꾸중하지
않으셔! 집에서 엄마랑 놀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놀 줄 모르는 사람
한테 유치원에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면담 2015. 11. 12.)

스스로 숙제가 아니고 놀이하는 거라고 세뇌라도 하듯 친구들 앞에서 강
조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더 떨쳐버리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되었다.

금요일이라 가정으로 나가는 안내문을 설명하는 중 강건이가 이야기한다.

강건: 오늘도 숙제 있어요?

교사: 숙제? 뭐가 숙제?
강건: 선생님이 집에서 해오라는 거 있잖아요?

교사: 너희는 유치원에서 했던 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알려드리는 걸
숙제라고 생각하니?

장건: 네. 힘들어요.

교사: 힘들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해도 돼.

유아: (교사의 눈치를 보던 몇몇이) 아니요. 좋아요.

(면담 2015. 11. 6.)

유치원에서의 활동을 가정에 알리는 계기도 되고 가정에 유치원에서의 활동을 유아들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 교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 혹 가정의 부모도 아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재미있게 지내라고 안내한 자료들이 숙제처럼 느껴졌다면 분명 원인을 찾아 즐겁게 즐기는 시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연구자 저널 2015. 11. 6.)

유아가 스스로 자신에게 세뇌하듯 연구자인 교사도 ‘연계 활동의 결과가 얼마나 많이 진행되었을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숙제가 아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을 소개했다는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개한 활동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 교사의 마음이 유아에게 전달되고 유아에게 전달된 마음이 가정의 부모에게도 전달될 것이라는 확신 아닌 확신을 교사부터 갖게 되었다.

보여주기 위한 가정연계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과정 뿐 아니라 활동하고 난 후에도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내온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활용되고 쓸모 있는 물건으로 남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대가도 필요치 않았다. 다음의 사진은 그림책 속 눈을 모빌로 만들어 보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찍어 보내 준 활동의 예이다. 가족과 함께 만든 눈꽃송이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정의 곳곳에서 활용되는 예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눈송이를 만들어 집에 모빌로도 달아보

고, 아빠의 도움을 받아 유치원에서 해보지 못한 거대한 눈송이를 만들어 눈송이 천사도 되어보고, 나들이 가는 길에 가족과 함께 만든 눈송이를 들고 나가 만큼 소중한 활동의 결과물이 된 것이다. 숙제의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닌 가족과 함께 한 결과물이기에 단순히 만들고 끝내는 활동에서 벗어나 소중한 물건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기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과의 연계활동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활동한 것이 있으면 친구들과 나누고, 없으면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편안한 일상이 되었다.

건우는 내복을 입고 율동을 한다. 노래와 율동을 함께 하는 것이 벽찬 지가사가 자꾸 틀리니 엄마가 촬영하면서 노래를 같이 불러주신다. 마지막에 엄마 합성과 함께 끝난다. 강건의의 동영상을 감상한 후 강건이와 대화를 나누었다.

교사: 강건아! 노래를 같이 부르신 분이 누구야?

강건: 엄마요.

교사: 언제 찍었어?

강건: 어제요. 아빠가 갑자기 안했어요.

교사: 왜?

강건: 같이 하자고 했는데 누나랑 저랑 엄마만 했어요.

교사: 하면서 어땠어?

강건: 재밌었는데 너무 시시해요.

교사: 어떤 게 시시했어?

강건: 아빠가 안 한 거.

교사: 아빠가 안 한 게 시시했어? 그럼 다음에는 아빠랑도 같이..

강건: 했어요.

교사: 왜 그건 안 찍었어.. 그것도 있으면 보내줘.

강건: 아빠는 하고 싶다고는 안 해요.

교사: 노래는 엄마가 불러 주신거야? 엄마는 노래를 알고 계셨니?

강건: 제가 가르쳐 줬어요.

(면담 2015. 11. 23.)

강건이가 집에서 찍어 온 율동 동영상과 함께 보면서 꽃잎반 친구들은 강건이네 가족이 하던 율동을 따라해 보고 싶어 했고 강건이가 만든 율동을 함께 해 보고 동영상을 찍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친구가 가족과 함께 활동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도 조성되었다.

가족과 함께 배운 노래에 율동을 만들면서 정확하게 부르지 못하는 아빠를 위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하은이는 율동을 하고 엄마가 노래를 부른다. 엄마 목소리만 나오다가 후렴 부분에 아빠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교사: 하은아! 엄마 아빠가 이 노래를 알고 계셨니? 가르쳐 드렸니?

하은: 가르쳐 드렸어요.

교사: 그렇게 금방 배우셨어.

하은: (가족 활동지) 종이에 써 있는 거 보고 부르셨어요. 근데 음을 다르게 부르셨어요.

교사: 우리가 배운 노래를 정확하게 알려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아: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드려요.

(면담 2015. 11. 23.)

그림책 속 다양한 구름을 관찰하고 나서 구름빵을 만들어 보기로 한 꽃잎반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취향과 방법으로 만든 구름빵을 소개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꽃잎반 친구들은 친구들이 만들어 소개하는 요리된 구름빵 사진을 보며 경쟁하지 않고 신기해하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 하고 서로가 구름빵을 만들었던 방법을 나누는 모습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을 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일상생활 속 활동한 결과물 바로 바로 올리기

손 안의 작은 정보 매개체 핸드폰으로 활동 결과물을 바로 올리고 바로 확인하는 과정이 즐겁고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교사에게도 부모에게도 손쉬운 방법이 되었다. 강건이네 가족은 동영상 찍은 시간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 후 바로 업데이트하여 지체하지 않아도 되었다.

강건이네 가족이 촬영한 율동 동영상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고 나서 강건이가 와 나눈 대화 중

강건: 선생님 저는 바빠서 10시 넘어서 했어요.

교사: 건우는 바쁜데도 영상을 준비해서 왔구나.

(면담 2015. 11. 23.)

홈페이지에 예전에 올렸던 그림책이나 글에 댓글을 달고 다시 들어가 확인해 보는 가정도 생겼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여건이 허락하는 가운데 각 가정의 의견과 소감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자유

롭게 만들어 주는 시간이 되었다. 그림 5는 홈페이지에 남긴 대화의 예이다.



[그림 5] 홈페이지에 달린 댓글

유치원에서 그림책 속 크리스마스트리를 관찰하고 다양한 물건으로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 본 후 가정에서도 집에 있는 다양한 물건이나 재료로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였고, 이는 소개한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밴드에 올려주어 서로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은 가정에서 만든 트리를 사진으로 찍어 직접 올린 예이다.



[그림 6] 가정의 다양한 재료와 물건으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4) 2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평가

2차 실행을 마친 후 2016년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반성적 사고와 평가 결과 가정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 활동지 하나에 의존해 오던 가정연계가 SNS 활용을 통해 소통의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홈페이지보다는 간편하고 손쉬운 온라인상의 밴드는 유치원과 가정이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유아의 활동을 바로 바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가정의 활동을 교사와 유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모든 가정의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방과후 과정반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다른 가정에서 교육활동을 적용하는 방법을 나누며 그 가운데 교육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활동 결과물에 대해 자유로워지기

가정연계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유치원의 교사나 가정의 부모 모두 활동 결과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과에 대해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은 연구자는 가정에 대해 자유롭고 유연해질 수 있었다.

결과물을 직접 보내는 것보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 용이해 보입니다.

(설문조사 2015. 2. 19.)

교사: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할 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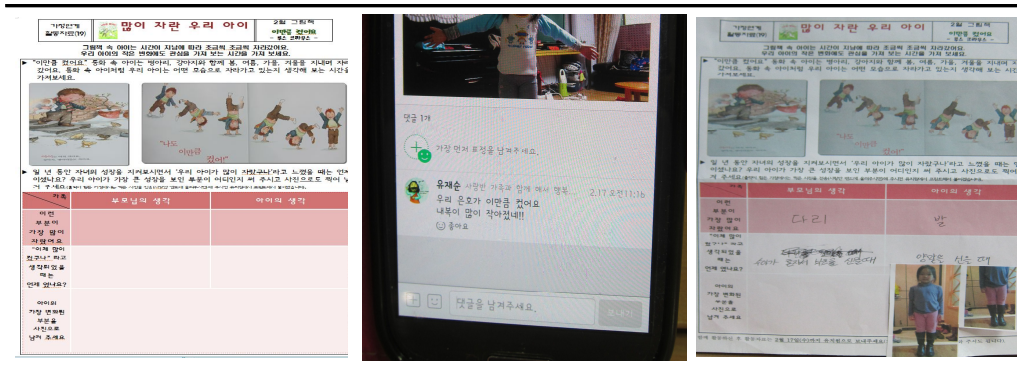
지호 엄마: 네 괜찮아요.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요.

교사: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이 날 때 함께 해주시면 지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호 엄마: 아 네 네. (다시 바쁜 발걸음을 옮기신다.)

(면담 2016. 2. 4.)

다자녀를 둔 지호 어머니의 경우 매번 참여하지는 못했다. 지호가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가족의 협조가 부족한 상태였다. 하지만 대가족인 만큼(할머니가 양육을 위해 함께 살고 계신다) 엄마가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아빠가 혹은 형이 혹은 할머니와 함께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을 면담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활동의 결과로 가족 활동지가 유치원으로 보내지지 않았지만 지호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지호가 구두로 전달하거나 활동이 지난 후에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밴드로 올려주었다. 시간에 구매 받지 않고 가정의 사정이 허락할 때 활동을 하고 늦게라도 활동에 대한 소감을 지호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다. 보내진 가족 활동지를 빈 종지로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피드백을 보내는 수지네 가정도 있었다. 정해진 방법이 아닌 가정에서 접근하기 편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림 7은 배부된 가족 활동지의 결과물을 온라인상으로 보내 준 가정이 있기도 하고 종이 활동지에 기록을 남겨 보내준 가정도 있어 각 가정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배부된 가족 활동지에 대한 가정의 피드백

누나 졸업식 때문에 시무를 데리러 온 엄마

교사: 요즘 가족연계 활동 참여가 좀 뜸하시네요.

시무 엄마: 그지요, 시간이...

교사: 바쁘시지요? 가족 연계활동을 숙제처럼 꼭 하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활동을 소개하고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가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무 엄마: 시무는 밴드에 들어가서 글 남겨 달라고 해요.

교사: 도움이 되긴 하시나요?

시무 엄마: 네. 시무가 책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책과 비슷한 책들을 집에서도 찾아보면서 무엇이 다르고 비슷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유치원에서 하는 활동을 집에서 많이 얘기해요.

교사: 관심의 정도를 글을 남겨주시지 않으면 확인할 수 가 없어서요. 그렇다고 글을 남겨달라는 말씀은 아니니 부담 갖지 마세요. 유치원과 가정이 잘 연계되고 있는지... 하면서도 궁금해서...

엄마: 도움이 돼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면담 2016. 2. 16.)

위의 글에서 시무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총 19번의 가정연계 활동 중 결과물을 가지고 온 것은 4번뿐이었던 시무네 가족이지만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시무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고 결과물을 유치원으로 보내지는 못했지만 밴드의 댓글을 통해 관심을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유치원과 가정

유치원과 가정을 오고가는 유아는 교사와 부모 사이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을 것이다. 유치원에서 원하는 것과 가정에서 원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잘 교육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는 있지만 실천 방법에 있어 소통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을 시도했다. 긴 시간 얼굴을 맞대고 하는 소통은 아니지만 유치원은 가정의 상황을, 가정은 유치원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

가정연계를 마무리 하며 각 가정에서 가족사진으로 그림책을 완성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가정에 있는 그림책 중 가족과 의논하여 마음에 드는 그림책 한 권을 골라 가족이 함께 그림책을 완성해 보는 활동이었다. 물론 그림책 한 권을 사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참여한 가정이 15가정 중 6가정이었다. 이 중에서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하윤이네 가족의 경우 완성은 하지 못했지만 꽃잎반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 밴드에 가족 그림책을 올려 주었다. 그림 8은 가정에서 만든 가족 그림책을 밴드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림 8] 김하윤 가족의 미완성 그림책

비록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재미있게 꾸며진 그림책을 그냥 가족끼리 보고 지나치기에는 아쉬움이 남았던 엄마가 사진으로 보내주었고, 교사는 밴드에 올렸다. 가족에게 격려의 글을 남기며 용기를 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각 가정에서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신체표현을 밴드를 통해 나누고 표현한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퀴즈를 내어 맞춰보는 활동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9는 온라인상에서 가족 간에 서로 서로 문제를 내고 답하는 과정을 보여준 예이다.



[그림 9] 밴드에서 소통하는 꽃잎반 가족

2.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1) 유아의 변화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행을 통해 유아들은 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을 가정에까지 연장하여 갈 수 있어서 누구보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반 교육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다. 즉 교실에서의 활동의 중심이 교사에서 유아에게 힘을 실어주었더니, 가정에서 활동의 중심이 된 유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 전개는 유아로 하여금 그림책을 가까이하고 생활 반경 안에 그림책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에 관심이 많아진 유아들은 자신의 활동 결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야가 확대되어 친구들의 활동 결과에도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 유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활동의 중심이 된 유아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그림책 속 이야기가 가정과도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림책 속에서 보았던 것을 일상에서 찾아보고 책 속에서 발견한 장면이나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며 의문을 가지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가을이 좋아” 그림책을 나누며 유치원 바깥놀이터의 감나무, 텃밭의 벼 등을 관찰하고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유아들은 묻지 않아도 먼저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며 집에서 알아오겠다는 자발적인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다.

오늘은 가을에 익어가는 열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익는다”는 개념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유치원에 열린 감을 따러 간다고 말하면서 왜 따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초록색 감이 익어서 감을 따는 거라며 익으면 왜 따느냐는 말에 그냥 두면 새들이 와서 먹고 썩는 다는 말을 한다. 익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물음에 초록이 주황색이 되면 익는거라고 한다. 익으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왜 익으면 땅으로 떨어지느냐는 물음에 무거워진다고 한다. 여름에 보았던 감의 크기나 지금 보는 감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는 듯 보이는데 “어떻게 더 무거워지는 아니?”라는 물음이 그 안이 채워진다는 표현을 한다. 과학적이지 않은 듯 과학적인 아이들의 대답을 통해 이야기나누기가 흥미로웠다.

날씨의 변화로 달라지는 것들을 찾아보았다, 나뭇잎, 낙엽, 우리의 옷차림 등을 쉽게 찾아내었다. 그 중 혜진이는 마음이 달라진다고 했다.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했지만 즉시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 바깥에서 감을 따고 와서 물어보았다. 가을이 되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냐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마음이 더 좋아진다고 했다.

오늘은 그림책 속 수확하는 가을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직접 딴 감을 가정으로 보내어 아직 익지 않은 감을 익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벼를 벨 때 마땅한 도구가 없어 가위로 벼를 잘랐는데 불편해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가정에서 벼를 벨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 알아보고 찾아와 보기로 하였다.

(연구자 저널 2015. 10. 14.)

궁금한 것이 생기면 이제는 “내가 알아볼게요.” 하는 자발적인 모습 속에서 유치원에서만 활동이 진행되었다면 지속적인 유아들의 이런 모습을 끌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가 교육활동을 제시해 주기는

하나 활동을 주도해 가는 리더는 유아가 되었다. 교사가 제시하면 서로 서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꽃감 만드는 도구를 대여해준다는 말에 너도 나도 손을 들어 자신의 의지를 표한다. 가정에 짐이 되고 숙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유아들을 통해 구두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오는 친구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연구자 저널 2015. 11. 3.)

등원하는 길에, 복도에서 만나는 하윤, 강건, 지호가 “엄마가 꽃감해도 된대요.”라는 말을 해서 무슨 말인가?(이렇게 까지 하고 싶은지 모르고) 했다. 엄마가 허락하셨으니 자신에게 꽃감 만드는 도구를 빌려달라는 뜻이었다. 어떠한 편지도 안내도 없었는데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의논했다는 것 자체가 함께 한다는 기쁨을 배로 늘려주는 것 같다.

(연구자 저널 2015. 11. 4.)

교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가족과 의논을 통해 활동을 완성해 보려는 유아들의 의지가 보이는 보였다. 우리 집에서 직접 꽃감을 만드는 데 유아가 주도하는 모습을 통해 가정의 부모도 지원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가정에서 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지만 유치원과 연계되어 서로 지원하는 가운데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특별히 그 달 그림책의 주인공이 되었던 아이는 책과 관련된 먹거리, 색깔, 농작물에 부쩍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문조사 2015. 11. 30.)

가정연계가 이루어지는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주일까지 엄마 아빠와 함께 하

려고 먼저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많아졌습니다.

(면담 2016. 2. 15.)

가정연계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을 모아서 설명하는 모습을 예서가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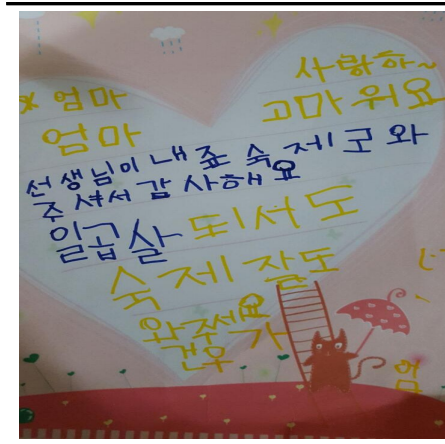
(설문조사 2016. 2. 15.)

그림책 장면을 자른 후 퍼즐처럼 맞춰 붙이고 내용을 설명하는 활동이 기억납니다. 평소에 자르고 붙이기를 좋아하다 보니 유달리 아이가 관심을 많이 가졌고 자연스럽게 그림책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설문조사 2016. 2. 15.)

그림책 속 주인공이 되었을 때 특별히 주제 그림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자세를 보였고, 가정연계를 통해 활동에 임하는 적극적인 유아의 태도들이 나타났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유치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활동을 유치원으로 와서 소개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횃수가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을 가정의 부모도 느꼈음을 설문조사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교사나 부모가 리더가 되어 활동의 중심에 선 것이 아니라 활동의 중심에서 있는 유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뻗어나가는 힘은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아 자신이 얻은 자신감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있는 가정의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강건이가 쓴 감사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사람에게 쓴 편지글 중 가정연계를 잘 도와 준 엄마에게 쓴 강건이의 글이다. 그림 10은 일 년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감사한 분이 왜 엄마인지 어떤 감사의 이유가 있었는지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림 10] 가정연계에 도움을 주신 엄마에게 쓴 편지글

숙제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함께 해 준 엄마의 고마움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일 년 중 가장 감사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였는데 유치원과 가정의 활동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준 엄마가 생각났다는 것은 그 만큼 유아에게 가정연계가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그림책과 가까워진 유아

유치원과 가정연계의 매개가 된 그림책은 늘 유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과는 별개로 그림책을 대하던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했던 활동을 가정에서도 그림책을 가지고 활용해 보는 예를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엄마가 전해주신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다.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책을 그냥 보지 않고 그 속에서 관찰 하고, 유치원에서 한 활동을 응용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설문조사 2016. 2. 19.)

유아들이 좋아하는 놀잇감 중 하나가 그림책이다. 방과후 과정반에서 그림책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활동이 단순히 유치원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유아가 다시 활동을 재탄생시키는 일이 생겼다.

가을이 좋아 책을 사진으로 재구성한 뒤 예서가 책을 빌려갔다. 어머니가 예서를 데리러 오신 길에 먼저 책을 나눈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다.

예서 엄마: 강아지 몸에 예서 사진이 붙어 있어 제가 웃었더니 예서 왈
“시골에서 강아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라고 말하더라고요.

(면담 2015. 11. 4.)

이제 그림책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남의 책이 아니라 보고 또 봐도 새롭게 느껴지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또한 유아들이 재구성한 책을 가정으로 돌려 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였다. 이에 지면으로만 만나는 그림책이 아니라 화면 속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그림책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유아의 사진으로 완성된 그림책이 한권이어서 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단시간에 여러 가정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림책을 사진으로 찍어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를 꽃잎반 유아에게 안내하며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 꽃잎반에 찾아 들어가 그림책이 게시되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안내하면서 이전에 올렸던 게시물에 답장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림책을 함께 감상한 후에 감상 소감을 홈페이지 상에도 올려보는 시간을 갖자고 약속했다.

(연구자 저널 2015. 11. 6.)

홈페이지에 올린 그림책을 얼마나 보았을까 하는 두근거림과 함께 아침에 출근 하자마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남긴 글을 확인했다. 아무 글도 아무런 반응도 없던 그곳에 은준, 혜진, 하은, 강솔, 강건이의 가정에서 그림책을 감상하고 댓글을 남겨주셨다. 그동안 아이들과 활동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어떻게 가정에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 불평했던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당연히 계획안을 통해 잘 전달되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활동한 것을 집에 얼마나 잘 전달(이야기하는지)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다.

(연구자 저널 2015. 11. 9.)

유치원에서만 보는 그림책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보며 나눌 수 있는 그림책이 되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림책을 보면서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부모와 나누고 그러면서 관심 있는 사진에는 서로의 의견을 글로 올리면서 그림책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유아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유아 뿐 아니라 부모도 그림책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책을 나누면서 유아의 가정에서의 변화를 설문지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책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림책 설명도 해 주었어요.

(설문조사 2016. 2. 15.)

일방적으로 듣고, 읽는 그림책이 아니라 유아가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그림책에 부모에게 내용도 설명하고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었다.

(3) 친구에게도 관심을 돌리는 유아

유치원이라는 공동의 공간에서 활동한 것을 각 가정에 가서 전달하고 가정에서 활동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면 자신의 활동 결과를 소개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친구들이 가지고 온 결과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한 것보다 얼마나 더 잘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을 자랑하던 일차원적 수준이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친구의 집은 우리 집과는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 그 관심의 초점이 친구에게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해 온 것과 다른 점도 찾고 비슷한 점도 찾아가며 친구에게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집에서 만든 율동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치원에 보내주어 친구들과 나누고 친구가 선생님이 되어 같이 율동을 하면서 서로 즐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련된 동작은 아니지만 뭔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친구들 앞에 서는 것이 또 다른 기쁨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치원으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신들이 올린 영상이나 가족과 함께 한 활동을 바로 바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월요일에 활동하면 다음 날 화요일이면 곧장 소개가 되기를 기다린다.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한 결과가 친구들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연구자 저널 2015. 11. 23.)

동영상을 보내온 친구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고 친구의 동영상을 빨리 보고 싶다고 교사들 독촉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같은 반에 있지만 친구의 이름 정도 알고 가정에서 부모가 친구에 대해

물어보면 “몰라”, “나랑 안 친해.”라고 대답하던 유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먼저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활동한 것을 발표한 날이면 그 친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고 전하여 들었다.

친구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거나, 집에서 유치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면담 2016. 2. 19.)

부모의 입장에서든 꽃잎반 자신의 자녀에게만 두었던 관심이 자신의 자녀와 함께 하는 친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부모의 변화

(1) 현미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

현미경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물체나 물질을 확대해서 보는 기구이다. 가정의 부모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 교육활동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지만, 거리상 또 심정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 볼 수 없는 여건에 놓여져 있다. 더군다나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반은 교육과정반처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많았다. 대부분 교육과정반의 일과가 끝나고 귀가 전까지 보육 위주의 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연히 일 년의 계획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반의 교육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의 실행이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꽃잎반에서 실행된 가정연계

활동은 이런 부모의 관점에 변화를 주었다. 아주 멀고 작아,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의 눈으로 방과후 과정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수업시간 전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니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진행되었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다. 홈페이지에 댓글이 하나씩 늘어남을 보며 이것이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증거가 아닌지 싶다. 댓글이 0이라고 나와 있던 홈페이지에 숫자가 커지면서 교사의 마음도 뿌듯해짐을 느낀다.

(연구자 저널 2015. 11. 11.)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활동의 결과물인 사진을 통해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 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모가 늘어가는 것에 교사의 기쁨도 있지만 부모가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랑반 선생님께...

유치원 동화를 보고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도 깜짝 놀랐어요. 알고 있는 책이었는데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니 더욱 재미있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2015. 11. 7.)

강술이가 엄마 역할을 맡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 정말 강술이 사진이 상황에 맞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2015. 11. 7.)

“가을이 좋아” 책 속에서 추수하는 장면이 가장 재밌어요. 친구들이 책 속에 나오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좋은 활동 진행해 주셔서 아이들 기억에도

더욱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2015. 11. 8.)

쉬는 날! 모르는 번호로 날아온 문자 메시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문자를 확인하며 감동의 물결이 잔잔히 퍼졌다. 구름빵 만들기 가정연계 요리 활동을 소개하며 활동사진을 찍어 출력하기 힘든 가정은 사진을 전송해 주시면 유치원서 출력하겠다고 했더니 보내주신 것이다. 일거리가 아닌 활동의 결과로 ‘얼마나 행복했을까?’ 라는 마음과 함께 빨리 유치원 가서 아이들의 사진을 출력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제가 아닌 함께 하는 활동을 나누는 즐거움이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다.

(연구자 저널 2015. 11. 15.)

가정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속속 카톡으로 전해져 온다. 전해져 오는 동영상을 오는 대로 유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 날 그 날 다운 받아 수업 전에 소개한다. 유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웃어댄다. 가족과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즐거운 점을 나누며 꽃잎반 가족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연구자 저널 2015. 11. 24.)

가정과의 연계 활동은 유치원 꽃잎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대해 관심만 갖고 있던 가정에 꽃잎반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생활주제로, 어떤 그림책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확대경으로 먼 곳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현미경으로 유아들의 교육활동을 세세히 들여다보는 부모의 시각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가정으로 소개하는 유아들을 통해 일련의 활동이 가정과 연계되고 있고, 가정에서 유치원으로 돌아오는 활동으로 풍성해졌다. 아이의 활동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일방적인 전달에서 소통하려는 부모

유치원에서 전달되는 내용을 듣기만 하거나 가정의 요구를 유치원으로 전달만 하던 부모가 유치원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가정과의 연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설문지를 통해 부모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설문지 한 편에 이런 답변이 있었다.

우리 아이가 연계활동에 참여되는지도 몰랐어요. 별다른 안내문이 없어서요. 또 아이가 집에 와서 그림책 활동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요.

(설문조사 2015. 10. 19.)

이런 결과에 대해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었다. 유치원에서 계획안이 나가고 유아들과 활동을 충실히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유치원은 유치원 나름대로,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것이다.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에서 해야 할 책임과 열심히 했지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었다. 그림책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에 하게 되는 그림책 재구성 활동을 가정에서 실행한 강건이네 가정의 의견이다.

가족사진을 활용해서 그림책 꾸미기는 활동이 가장 가족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 같아서 재미있고 뿌듯했습니다. 아이가 책을 고르고 아빠가 사진을 출력하고 누나가 자르고 엄마가 도와주고 가장 단합하여 활동했습니다.

(면담 2016. 2. 16.)

활동의 가장 마지막에 유치원 친구들과 나누었던 방법을 가정에서도 나누어 보면서 가정에서 만들면서 느꼈던 재미있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을 유치원에서 이야기 해 주고, 만들어진 그림책을 유치원으로 가져와 소개하며 유치원과 가정이 서로 소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유치원에서 하는 활동을 가정으로 소개하는 일은 많았다. 하지만 가정에서 한 활동을 유치원으로 소개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 생동감 있게 나누기가 쉽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유치원과 가정은 둘 중 누군가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그림책과 관련한 활동으로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가진 예를 다음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2월에 함께 한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림책도 크리스마스 와 관련되어서 해당 계절과 절기가 연계가 되어 활동하기 좋았어요.

(설문조사 2016. 2. 19.)

가정연계 하는 동안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끔 주말에 멀리 다녀오면 시간이 없을 때가 있기는 했지만 유치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치원 활동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설문조사. 2016. 2. 19.)

하지 않았던 활동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도 어렵던 일이 일단 시작하여 일상 속 습관으로 몸에 익히면 편안한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과정을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연계 되는 결과는 유치원과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만큼 결실을 맺게 되었다. 유치원과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놀이의 재미를 배가 되게 하였다. 유치원에서의 활동이 가정으로, 가정에서의 활동이 유치원으로 소개되며 일방적인 전달이나 지시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3) 놀이방법을 알아가는 교사 같은 부모

유치원에서 교육의 조력자가 교사라면 가정에서 교육의 조력자는 당연히 부모일 것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교육의 대상자가 자신의 아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 아이를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교사: 10월의 그림책 “가을이 좋아”와 관련해서 가정에서 확장해서 해 보신 활동 있으세요?

강건 엄마: 산책하면서 가을에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단풍 잎도 만져보고 잠자리도 봤어요.

(면담 2015. 10. 19.)

교사: 연계 활동이 진행되기 전과 진행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하운 엄마: 다른 책에도 적용해서 가정에서도 활동하게 되었어요.

(면담 2016. 2. 16.)

가정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부모와 아이가 하는 대화가 극히 일상적이었다면, 가정연계가 이루어진 후에는 일상 속에서 교육적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유치원에서의 교육과 연계하여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도 알아가는 강건 엄마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가을 풍경을 그림책과 연계하여 아이와 이야기 나누기를 시도하는 모습 속에서 유치원에서 소개한 활동을 가정에서도 나름의 방법으로 소화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그림책을 대할 때도 유치원과 가정에서 했던 활동을 적용해 보는 구체적 시도들이 보였다. 구체적 놀잇감과 장소가 아니어도 주어진 여건 안에서 아이와 함께 놀이해 가는 가정이 유치

원과 함께 공동의 교육목표를 갖고 가정에서의 교사 역할을 충실히 해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유치원에서 주제 그림책이 정해지면 가정에서의 부모는 그와 관련한 도서를 찾아 함께 해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교사: 가정에서도 유치원에서처럼 그림책을 가지고 활동해 보신 게 있나요?
은준 엄마: 관련된 도서를 같이 찾아 읽어 봅니다.

(면담 2015. 10. 19.)

거창하지는 않지만 지금 유아가 하고 있는 활동과 관련한 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도서를 함께 찾아주는 부모는 좋은 교사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교사는 가정에서의 부모가 활동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교육적인 활동을 소개하는 노력에 보답하듯 가정에서의 부모도 유치원에 눈과 귀를 모아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서에서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찾은 글이다.

가정연계 활동에 될 수 있는 한 적극 참여했어요. ‘이번 주는 무엇일까?’ 궁금증이 유발되었고, 동생도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해요.

(면담 2016. 2. 16.)

늘 텔레비전 만화나 보려고하고 아빠와도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교육 활동을 통해서 온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매체가 생겼고 이를 통해 좀 더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일방적인 부모의 질문이 아니라 아이의 대답에서 서로 간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2016. 2. 15.)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듯 유치원에서 주어지는 활동을 연계하여 어떻게 아이에게 활동을 소개할까를 기대하고 고민하는 모습 속에서 연구자는 동료

교사를 찾은 듯한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가정이라는 공간에 함께 있기는 해도 특별히 뭔가를 같이하거나 특별한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하고 아이와 대화할 수 있었다는 설문조사의 글귀가 연구자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주었다.

가정에서 활용해 보았던 활동 중 소개해 주고 싶은 활동도 알아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다.

책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가지고 재구성해 보면서 만들어 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설문조사 2016. 2. 15.)

유치원과 가정에서 동시에 꽃감을 만들면서 교사가 놓친 부분을 찾아 방법을 제안해 주시는 부모님도 있었다.

하운 엄마: 말씀드려!

하운: (뼈죽대며 말을 못한다.)

하운 엄마: (마지못해) 어제 집에 꽃감 만들고 있는 거랑 비교하려고 유치원 꽃감 살펴봤는데 밑에 있는 것 중 곰팡이 생긴 게 있는 거 같아요.

교사: 아! 네(곧장 나가 망을 걷어내고 살핀다.) 하운이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 했네.

하운 엄마: (미안해하며) 저희 거 보면서 이것도 관심이 가세요.

(면담 2015. 11. 11.)

교사가 놓친 부분을 어머니의 도움으로 수정해 갈 수 있었다. 유치원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살피고 해 내는 것은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활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동산유치원 만 4세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활동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실행 연구로,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를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와 부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 과정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에서 진행된 가정연계는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월간교육계획안과 교사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림책 활용 결과물인 사진자료가 전부였다.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과 글쓰기에 불과한 가정연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방과후 과정반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효과적인 가정연계 운영 방안을 1차와 2차로 실행하였다.

첫째,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가정과 연계하기 위하여 1차 실행은 방과후 과정반에서 수업주제로 선정한 그림책을 가정에도 보내어 유치원과 가정에서 공통의 그림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부모들은 매주 또는 매일 전달하는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같은 지면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임효선(2010)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유치원과 가정에서 주제 그림책을 충분히 보고 읽은 후에는 그림책의 내용과 연계하여 활동지를 만들어 가정에 배부하였다. 이

를 통해 유치원에서 수업한 활동이 유아를 통하여 가정에 소개되고, 소개된 활동은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활동함으로 가정에서 다시 한 번 경험하고 재구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치원과 가정 간의 연계를 위해 가정에서 활동한 결과는 유치원에서 배부된 가족 활동지에 기록하고 활동사진을 붙여 다시 유치원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는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을 심화·확장하는 활동으로 각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서울특별시교육청, 2016)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실천으로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 연계활동은 교육과정의 심화·확장이 가정으로까지 확대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책을 교육활동에 적용하는 것은 유아 뿐 아니라 부모에게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바람직한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김수영, 이미경, 2010; 김주현, 2014; 유은석, 2008; 이아영, 2014)는 점에서도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는 방과후 과정반 교육활동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는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실행에도 불구하고 1차 실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치원에서 배부된 가족 활동지가 유치원과 가정을 연계시켜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교육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방과후 과정반의 부모에게는 교육적 유익보다는 부담감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맞벌이 부모에게 정기적이지 않는 배부 요일과 많으면 주 2회 배부되는 가족 활동지는 제출해야만 하는 숙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자율적인 참여를 강조했지만 연계 활동을 하지 못한 유아들은 연계 활동을 한 유아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꼈고, 소외된 감정을 부모에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더구나 유치원에서 소개되는 활동이 정적이고 지면을 채우는 단순한 활동일수록 유아와 부모의 관심과 흥미는 더 떨어져갔다. 또한 바쁜 생활 속에서 지루하고 형식적인, 실생활과

무관한 활동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한 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정미라, 홍용희, 엄정애, 이순영(2004)은 방과후 교육과정의 장점으로 유아에게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유아의 흥미, 요구 진단에 대한 평가와 발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점을 유아와 교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한 것을 염두 한다면 방과후 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할 교육활동의 종류는 신중히 선택되어야 한다.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배지희, 이봉선, 탁옥경(2005)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방과후 과정을 통해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방과후 과정은 여유 있는 교육시간으로 인해 교육과정과 달리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교육활동과 놀이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배부되는 가족 활동지가 놀이 중심이어야 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1차 실행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2차 실행을 계획하고 전개하였다.

둘째, 2차 실행은 가족 활동지와 함께 SNS를 활용하여 가정연계를 진행하였다. 1차 실행에서는 종이로 배부되는 가족 활동지에만 의존하던 것을 기존의 유치원 홈페이지와 밴드라는 온라인상의 앱을 이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부모의 부담은 줄이면서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1회 금요일에 가족 활동지를 배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가족 활동지를 종이로 배부함과 동시에 밴드에도 올려 종이 활동지가 없어도 온라인상으로 가정연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의 활동 결과를 부모가 유치원으로 보내면 이를 교사가 올리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상의 앱을 이용하여 가정에서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결과를 올려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해 나갔다. 방과후 과정반 유아들의 모든 가정에 연계활동을 소개

는 하였지만 꼭 해야만 하는 과제가 아니라 유아를 위해 가정에 제안하는 활동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가정에서 유치원으로 돌아오는 활동 결과물의 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하여 유아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업 중에 유아와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글을 남기거나 활동사진을 함께 찾아보며 유아에게 자극을 주고, 온라인상에 올라온 다른 친구들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이 자칫 정적이고 인지적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하여 최대한 일상생활과 연관 지어 소개하도록 노력하였다. 활동한 결과물을 출력이나 활동지에 기록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밴드의 공간에 바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SNS를 활용하기 이전에는 활동지에 활동 결과를 기록하고 사진을 붙이기 위한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SNS의 활용으로 가정에서는 활동의 결과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하는 기간에 제약 없이 활동하고 난 후 번거로운 작업 없이 바로 올릴 수 있었다. 또한 가정 간 서로의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를 통해 가정 간 다른 공간에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그것에 대해 소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SNS의 주요 기능은 개개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SNS에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SNS 사용자가 SNS를 이용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다(정유진, 배국진, 2010). SNS를 활용한 방과후 과정반 가정연계 활동은 맞벌이로 바쁜 방과후 과정반 부모에게 방과후 과정반의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교육에의 적극적인 참여로까지 연계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e-learning을 활용한 가정연계 활동이 유치원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미순(2016)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온라인 환경의 사회관계가 정보에 의해 시작되지만 지속적인 노출과 시간과 노력으로 인해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다(김지혜, 2012)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SNS를 활용한 가정연계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아 상호 간, 유아와 부모, 교사와 부모 간에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인 결과로도 여겨진다. 즉, 가정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어 불안 행동, 미성숙 행동 등을 포함한 부적응 행동을 많이 보이는 방과후 과정반 유아들(장영숙, 고선희, 2005)의 정서적 안정감을 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SNS를 활용한 가정연계 활동이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SNS를 활용한 방과후 과정반의 가정연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와 부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변화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는 방과후 과정반 가정연계 활동의 중심이 되어 갔다. 유치원에서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던 활동이 가정연계를 통해 가정에서는 유아가 교사를 대신하여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유치원에서 사전에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활동 방법과 활동 내용을 익

숙하게 알고 있는 유아는 가족 활동지를 가정에 소개하면서 가정에서 교사 처럼 활동을 주도하고 소개해 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진행한 활동을 유치원에 와서 다시 소개하면서 유아들은 자신감과 주도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전래동요를 활용한 u-Learning 가정연계 활동을 통해 유아가 가정연계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고 밝힌 최미순(201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유아는 그림책과 가까워져 있었다. 가정연계의 매개가 된 그림책은 단순히 연계 활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유아의 생활에 일부분이 되어 있었다. 늘 가까이에 그림책을 두고 찾아보는 유아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유치원에서만 보는 그림책이 아니라 가정과 공유하면서 같은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다. 또한 주제 그림책과 관련한 다른 그림책을 찾아보면서 다양한 그림책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그림책은 책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남주희(2012)의 주장과 가정과 연계한 책 읽기에 대한 유아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성자(2007)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셋째, 유아는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친구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친구에게 뿐 아니라 친구가 소개하는 활동에도 관심을 가졌다. 유치원에서 활동한 것을 각 가정에 가서 전달하고 가정에서 활동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자신의 활동 결과를 소개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가정에서 가져온 활동의 결과를 소개하는 친구들과 친구들이 가지고 온 결과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처음에는 본인보다 얼마나 더 잘했는지에 대한 일차원적 수준의 관심이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친구의 집에서는 어떻게 놀이하여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지에 관심의 초점이 옮겨져 갔다. 내가 한 것과 다른 점도 찾고 비슷한 점도 찾아가며 친구와 친구가 가지고 온 결과물에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재숙(2007)은 유아는 친구

와 함께 놀기를 통해 개인의 관심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상호교환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였다. 유아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서로를 인정하는 방법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2) 부모의 변화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는 현미경의 눈으로 방과후 과정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부모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사소한 일상에 보이던 관심을 교육활동에 몰입하여 참여하는 자녀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망원경의 시선으로 멀리 있는 무언가를 막연히 바라보는 부모의 태도에서 현미경의 시선으로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자녀가 어떤 교육과정에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는 부모에게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유아들이 보다 풍부한 자원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였던 김정희(1999)의 연구에 근거하여 풍부한 자원 속에서 활동하는 유아를 보며 부모의 관심은 유아가 참여하는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원영과 배소연(2000)은 부모와 기관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가 교육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도 교육과정을 완성해 가는 협력자로 자세하게 바라보는 태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는 일방적인 전달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을 받거나 혹은 유치원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태도가 아니라 교사와 소통하려는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 가정연계를 통

해 공통의 관심거리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창이 생겼고 이는 소리치면 다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유아와 유아의 가정을 더 이해하게 되어 유아에게 적절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는 노진형(2000)의 연구는 소통의 중요성을 지지해 준다. 최미순(2016)의 연구에서도 전래동요를 활용한 u-Learning 가정연계 활동을 통해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던 입장에서 공감하며 함께 소통하는 관계로 변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부모는 놀이방법을 알아가는 교사 같은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에 교사가 있다면 가정에는 부모가 있다. 유치원의 교사는 유아를 교육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부모도 재교육이 필요하다. 김희진(2014)은 현대사회의 부모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와 문화적으로도 의미 있는 부모 역할에 대한 모델과 이미지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교육활동을 통해 가정의 교사로서 놀이하는 방법을 알아가며 제안하는 모습은 류재순(2002)이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 내에서 자녀 교육과 연계되어 교육적 효과를 높이게 되어 활동 중심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생활 주제와 연계한 활동을 이해하게 되어 가정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간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임권일(2016)은 교육의 목적을 빨리 가는 비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했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부모는 놀이 비법의 전수자가 아닌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실행연구의 과정에 따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산유치원 만 4세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 활용 가정연계 실행연구는 1차와 2차로 전개되었다.

1차 실행은 가족 활동지를 중심으로 한 가정연계를 전개하였다. 1차 실행 과정은 방과후 과정반인 꽃잎반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가정과 함께 하기 위해 수업주제로 선정된 그림책을 가정으로도 돌려보면서, 유치원과 가정에서 공통의 그림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유치원과 가정에서 주제 그림책을 충분히 보고 읽은 후에는 그림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가족 활동지로 만들어 가정에 배부하였다. 유치원에서 수업한 활동이 유아를 통하여 가정에 소개되고 소개된 활동은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활동함으로 가정에서 다시 한 번 경험하고 재구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치원과 가정 간의 연계를 위해 가정에서 활동한 결과는 유치원에서 배부된 가족 활동지에 기록하고 활동사진을 붙여 다시 유치원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1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 및 평가 결과 유치원에서 배부된 가족 활동지가 유치원과 가정을 연계시켜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교육활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방과후 과정의 부모가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내어 활동의 결과물을 작성하여 유치원으로 보내는 것은 유익보다 부담감이 되었다. 또한 자율적인 참여를 강조했지만 연계 활동을 하지 못한 유아들은 연계 활동을 한 유아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꼈고, 소외된 감정을 가정의 부모에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유치원에서 소개되는 활동이 정적이고 지면을 채우는 단순한 활동일수록 유아와

부모의 관심과 흥미는 떨어졌다. 또한 바쁜 생활 속에서 지루하고 형식적인, 실생활과 무관한 활동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한 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1차 실행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2차 실행을 계획하고 전개하였는데 2차 실행은 SNS를 중심으로 한 가정연계를 진행하였다. 1차 실행에서는 종이로 배부되는 가족 활동지에만 의존하던 것을 기존의 유치원 홈페이지와 밴드라는 온라인상의 앱을 이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부모의 부담은 줄이면서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1회 금요일에 가족 활동지를 배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가족 활동지를 종이로 배부함과 동시에 밴드에도 올려 종이 활동지가 없어도 온라인상으로 가정연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의 활동 결과를 부모가 유치원으로 보내면 이를 교사가 올리는 것과 더불어 온라인상의 앱을 이용하여 가정에서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결과를 올려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해 나갔다. 모든 가정에 연계활동을 소개는 하지만 과제가 아닌 유아를 위해 가정에 제안하는 활동임을 강조하였다. 가정에서 유치원으로 돌아오는 활동 결과물의 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하여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 수업 중 유아와 홈페이지에 들어가 글을 남기거나 활동사진을 함께 찾아보며 유아에게 자극을 주었고, 가정에서 직접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상에 활동 후 올라온 다른 친구들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이 자칫 정적이고 인지적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점을 염두하고 그림책에서 찾은 활동을 최대한 일상생활과 연관 지어 소개하도록 노력하였다. 활동한 결과물을 출력이나 활동지에 기록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밴드의 공간에 바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방과후 과정반에서의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 실행 과정에서 유아와 부모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유아는 가정연계를 통해 가정에서 유아가 교사를 대신하여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활동 방법과 활동 내용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아는 가족 활동지를 가정에 소개하면서 가정에서 교사처럼 활동을 주도하고 소개해 주었다. 또한 가정에서 진행되었던 활동을 유치원으로 다시 소개하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주도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유아는 그림책과 가까워져 있었다. 가정연계의 매개가 된 그림책은 단순히 연계 활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유아의 생활에 일부분이 되어 있었다. 늘 가까이에서 그림책을 두고 찾아보는 유아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유치원에서만 보는 그림책이 아니라 가정과 공유하면서 같은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다. 또한 주제 그림책과 관련한 다른 그림책을 찾아보면서 다양한 그림책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아는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친구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유치원에서 활동한 것을 각 가정에 가서 전달하고 가정에서 활동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면 자신의 활동 결과를 소개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가정에서 가져온 활동의 결과를 소개하는 친구들과 친구들이 가지고 온 결과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부모는 현미경의 눈으로 방과후 과정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부모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사소한 일상에 보이던 관심을 교육활동에 몰입하여 참여하는 자녀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망원경의 시선으로 멀리 있는 무언가를 막연히 바라보는 부모의 태도에서 현미경의 시선으로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자녀가 어떤 교육과정에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부모는 일방적인 전달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을 받거나 혹은 유치원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태도가 아니라 교사와 소통하려는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놀이방법을 알아가는 교사 같은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에 교사가 있다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사로서 놀이하는 방법을 알아가며 제안하는 부모가 있었다. 이는 놀이의 비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아닌 놀이의 방법을 알려주는 교사의 모습을 갖춘 부모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방과후 과정반에서 그림책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심화·확장한 가정과의 연계를 실행하였다. 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을 가정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재구성하기보다 같은 활동을 가정에서 부모와 다시 재연하고 반복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의 활동을 가정에서 심화·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방과후 과정반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연계를 실행한 연구이다. 교육과정반보다 가정연계가 절실한 방과후 과정반의 현장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방과후 과정반에서 다양한 방법에서의 가정연계에 대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 활동지라는 지면에 의존하지 않고 가정연계 활동의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가정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전송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물을 올리고, 글을 남기는 예절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희(2010). 유치원에서 매일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문희(2002). 21세기 유아교육. 서울: 학지사.
- 강보라(2012).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적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문숙, 임영심, 김수향, 손혜숙(2007). 아동문학교육. 서울: 양서원.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치원 지도서 13 종일반. 서울: 두산.
- 교육부(1995). 유치원 교육과정해설. 서울: 교육부.
- _____ (2000).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자료 1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_____ (2014). 2014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운영 계획.
- 권미경, 윤재석, 조혜주(2015). 「3-5세 누리과정」의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5-25.
- 권영심(2013). 인성교육 그림책을 활용한 극화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덕숙(2001). 그림책 읽기를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어머니의 언어유형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05). 그림책을 통한 어머니-자녀의 책읽기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 교육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8). 그림책을 활용한 연극놀이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미(2008). 가정과 연계된 일상경험을 통한 수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자(2007). 가정연계 유아 책읽기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희, 현은자(1997). 어린이의 세계와 그림 이야기책. 서울: 서원.
- 김수영, 이미경(2010). 가정연계 교통안전 그림책읽기 활동이 유아의 교통안전지식과 교통안전 문제해결사고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19(3), 119-130.
- 김숙자(1989). 한국 유아교육에 있어서 부모참여·교육 프로그램의 역사적 발전과정분석을 통한 방향 탐색. 한국교원대학교(편), 교수논총, 5(2).
- 김영애(1998). 유치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포탈사이트 설계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예연(2002). 교사와 유아의 그림책 함께 읽기 상황에서 나타난 유아의 언어적 반응과 이야기 이해전략.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2010). 가정과 연계한 컴퓨터 교육이 유아의 컴퓨터 사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미(2013). 공립유치원 일반학급 교사와 방과후 과정 교사의 책무성에 관한 질적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99). 유아를 둔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251-292.
- 김주현(2014). 직업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가정 연계 진로교육이 유아와 어머니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 관계 유형에 따른 사회감성 모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희(2014).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편견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희, 박상희(1999). 유아문학교육. 서울: 학지사.
- 김혜영(2002). 경제 동화를 활용한 통합 활동이 유아의 화폐 개념에 미치
 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2005). 유치원 종일제에 대한 기혼취업여성의 요구와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2009). 그림책을 활용한 실험구성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2010).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이 부적응 성향 유아의 친사
 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201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과 지원. 서울: 과란마음.
- 나혜선(2016). 가정연계를 통한 유아 배려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
 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주희(2012). 가정과 연계한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 흥미와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노미숙(2014). 동화를 통한 가정연계 인성교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노진형(2000). 보육시설 연락장에 나타난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교환 내용
 에 관한 사례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재순(2002). 유치원 참여 활동을 통한 부모의 행동 및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희(2016). 제주지역의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

- 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선(2013). 그림책활용 토의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문희(2010). 그림책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이 만5세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2002).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유아교사의 지식. 서울: 창지사.
- 박정민(2015).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은경(2011). 가정연계 유아 기초체력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지은(2013). 유치원에서의 정기적인 전화상담 실시현황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희(2002). 유아교육과 부모참여의 의미와 실제에 대한 문화기술적 탐구. 유아교육연구, 22(4), 5-29.
- 배지희, 이봉선, 탁옥경(2005). 공사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실제에 대한 문화기술적 탐구. 유아교육연구, 25(1), 237-258.
- 법제처(2016). <http://www.moleg.go.kr/main.html>
- 서영민, 이영준(2011). 정보화정책 및 지원: 스마트교육 정책의 찬반 양론에 관한 교육적 고찰. 한국컴퓨터교육학회, 15(2), 205-208.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2015). 2015학년도 유치원 평가 편람 및 교원 연수 자료. 서울: 세원문화사.
-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 서현·이승은(2008). 공립유치원 오후 재편성 종일반 운영에 따른 교사와

- 유아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3), 399-411.
- 송윤희(2016). 수학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 게임이 유아의 수학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주연(2014). 실외 전래놀이 활동이 방과후 과정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호(2009). 그림책의 세계. 서울: 주니어김영사.
- 신민기(2012). 그림책의 이야기 맥락을 활용한 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옥순(2008). 유아교육학 개론. 서울: 학지사.
- 신윤정(2014).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주(2001). 가정과 연계한 그림책 읽기 활동이 만 3세 유아의 발생적 읽기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진(2012). 국가수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담당강사의 인식 및 수업의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보육재정팀(2007). 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21인 이상보육시설). 서울: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 여재원(20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전자 포트폴리오 평가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미(2003).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유치원의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석(2010).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용 동기와 충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유숙(2014). 방과후 과정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의 차이.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진미(2014).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활동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 및 환경 보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김연진(1997).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유은석(2008). 가정과 연계한 그림책 활동이 유아와 어머니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아정책연구소(2014). 2014 유아교육·보육 통계.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_____ (2016). 2015학년도 KICCE 연차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경숙(2007). 경기도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1997).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유아도서 추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양서원.
- 이기숙(2013).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 이 남(2005). 그림책이 유아의 신체외모에 대한 편견해소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누리(2015).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실태 조사: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대균, 송정원(2005).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관리. 서울: 양서원.
- 이루리(2014). 실외놀이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이 만 5세 유아의 창의성과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2001). 실행연구를 통한 교육 실제의 개선. 초등교육연구논총, 17(2), 381-408.
- 이상금, 장영희(2001). 유아문학론. 서울: 교문사.

- 이서빈(2010).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활동이 유아의 측정능력과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은(2015). 그림책을 활용한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례, 한미양(2011). 가정과 연계한 포트폴리오 유아평가 수행과정에 참여한 부모 이야기. 아동복지연구, 9(3), 61-85.
- 이순영(1997). 유치원에서의 종일제 학급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숙(2011).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학부모 요구조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아영(2014). 그림책을 활용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및 문학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숙(2005).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 하는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이원영, 배소연(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아동학회지, 21(2), 17-31.
- 이은수(2010). 동화를 활용한 가정연계 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탐구능력, 부모의 과학교육태도 및 부모-유아의 과학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숙(2007). 유아들의 친구관계 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혜(2012). 그림책을 활용한 협동적 집단게임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호(2016). 가정과 연계한 기초체력 증진 신체활동이 유아의 체력과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혁규(2012).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작지만 큰 차이에 대해서.
<<http://blog.daum.net/highdream/92>>에서 2016년 5월 15일 검색.
- 이혜숙(2014). 그림책을 활용한 감성코칭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권일(2016). 비법만 찾는 엄마 방법을 찾는 엄마. 서울: 문예춘추사.
- 임미선(2005). 유아용 인터넷 동화의 문학 및 멀티미디어 특성 분석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주(2014). 양육경험이 있는 기혼유아교사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이야기.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윤앵(2016).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교사의 인식.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재택(1995). 유치원 운영관리. 서울: 창지사.
- 임효선(2010). 가정 연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참여 실태 및 인식 요구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안나(2015).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활동에 대한 공립유치원 교사의 인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숙, 고선희(2005). 종일제와 반일제 유치원 유아들의 문제 행동 특성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9(1), 81-101.
- 장정은(2012). 가정과 연계한 칭찬활동 프로그램의 유무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형성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옥(2015). 그림책을 통한 질문생성전략이 유아의 창의성과 도덕적 판단 및 정서표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연주, 이진숙(2007). 가정연계 자연탐구중심 유아과학프로그램 효과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8, 1-17.

- 전우경(2010). 경기도지역 유치원의 부모교육 실태 및 학부모와 원장의 인식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미(2012).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가영(2012).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2010). 그림책을 활용한 극 놀이 활동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1992). 유치원 교사와 어머니의 부모교육 내용 요구 조사. 유아교육연구, 12, 163-186.
- 정미라, 홍용희, 엄정애, 이순영(2004). 유아를 위한 종일제 프로그램의 운영. 서울: 양서원.
- 정미애(2012). 가정과 연계한 유아 정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유정(2010).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관한 고찰. 어린이미디어연구, 9(3), 226-228.
- 정유진, 배국진(2010).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동향과 전망. EmergingIssuesReport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정재연(2015). 가정과 연계한 도서대여 활동이 유아의 언어창의성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숙(2001).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형에 따른 유아의 공격행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안나, 고영자(2015).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실태와 운영에 대한 방과 후 담당교사의 인식 고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2), 351-375.
- 진다정(2011). 종일제 특성화 활동에 대한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경험과 인

- 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성철(2013). 가정연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체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 려(2009). 트위터, SNS를 활용한 홍보 사례와 시사점. 월간하나금융, 230(10), 66-72.
- 채경란(2007). 가정통신문을 통한 가정과의 연계가 기본생활습관지도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희(2011). 패러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란(2010). 마이크로블로그 이용 동기가 미디어 기능인식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순(2016). 전래동요놀이를 활용한 u-Learning 가정연계에 대한 실험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수연(2010). 사립 유치원 종일제 특별활동 현황 및 담당 강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민(2011).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프로그램의 실태 및 학부모의 인식 조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옥(2006). 가정과 연계된 요리활동이 유아의 과학개념 및 수학능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홈페이지(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한윤경(2007).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 사회적 유능성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함희표(2000). 유치원 생활주제와 연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용희, 김기혜, 강경아, 김수정(2007).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의 바람직

- 한 운영방안. 유아교육연구, 27(5), 335-355.
- 황경윤(2011). 경제동화를 활용한 가정 연계 경제교육 활동이 유아의 경제 개념 및 유아와 부모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bour, C., & Barbour, N. H. (1997).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Building partnerships for educating children*. Upper Saddi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Epstein, J. L., (1996). Advances in family, community, and school partnerships. *Community Education Journal*, 10-15.
- Greenwood, Hickman (1991). *Adoption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An annotated bibliography*. New York: Greenwood Press.

ABSTRACT

An Action Research on Family Involvement using Picture Books in an After-School Course

Yoo, Jae - Soon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an action research for establishing a plan to vitalize family involvement by using picture books in an after-school class called flower-petal class for four-year-olds at Dongsan preschool.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mplement family involvement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in the flower petal class and to observe the changes that occur in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we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study.

1. How is the process of implementing family involvement using picture books in an after-school course?

2. What are the changes in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dur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family involvemen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in the flower petal class, a after-school course for four-year olds at Dongsan preschool which is located in D-gu in Seoul, with subjects including 15 children enrolled in the course and their parents. The research term was between September 2015 and February 2016, and involved the researcher comprehending the problems regarding the family involvement conducted at the flower petal class and carrying out an action research for vitalizing family involvement using picture books. Data was collect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interviews, journal writing, video, photographs, and other related documents, and the collected data was categorized through repetitive reading, explored in terms of its meaning,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problems. The present study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tudy distinguished a primary and secondary implementation process before proceeding with the family involvement.

Family involvement using picture books in the primary implementation involved sending thematic picture books read only at preschool to the home so that the books could be read with more interest, along with a family activity sheet that suggests the contents of the picture book as educational activities. After finishing the activity sheet that was distributed to the homes, the results are recorded on the sheet and an activity picture is attached and the sheet is returned to the preschool.

The assessment of the primary implementation shows that the flower petal class lacked the time and interest in family involvement participation because most of the parents were working couples. Also, the family activity sheet that was handed out to the families from the preschool felt like burdensome homework to the parents. Children were split into those that performed the activity sheet and those that did not, and the children that were not able to do the sheet became alienated.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participation was higher when the activities could be easily practiced in everyday life rather than activities that were too static or simple. The deficiencies of the primary implementation results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during the secondary implementation.

In the secondary implementation, family involvement using picture books was carried out, with a focus on SNS, through the smart phone application BAND and the preschool's homepage, along with the paper family activities sheet. The researcher made it possible for parents to exchange activity results by using the easily accessible smart phone application and homepage, in order to increase lacking time and interest. The use of SNS created time and space for the families that were interested in the activities introduced at the preschool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Just seeing the family involvement results of other families was an educational stimulus.

Furthermore, the children were impressed upon the fact that the family activities sheet was not homework but a proposal for play. The activity results sent by each family were introduced as data for sharing rather

than boasting. The use of SNS enabled the immediate upload of activity results and the instant and realtime response to those results. The assessment of the secondary implementation shows that family involvement centered on SNS enables freedom from activity results and allows the preschool and families to freely meet in online space.

Second, the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aspects of change displayed by the children and parents participating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family involvement using picture books in the after-school course.

First, the children became the center activity dur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activities from the preschool to the home. Children bringing the activity results to the preschool actively showed themselves explaining the results. Furthermore, because the start of family involvement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picture books handled in the flower petal class, the children became closer to various picture books as well as thematic picture books with the course of time. During the process of sharing family activity results, the children, who initially took interest in themselves and in showing the activity results they brought, later took interest in their friends and their activity results, as the study proceeded.

Next, the parents became focused on the children by participating in the family involvement education activities. The parents took interest in the education activities and the curriculum their children were taking part in with a gaze like that of a microscope rather than vaguely observing them from a distance. Also, parents, who had one-sidedly received or given results, now showed themselves trying to communicate

with the teachers of the preschool. They did the activities centered on the picture books and tried to talk about it with the preschool. The parents trying to communicate had changed from parents that grant unconditional love to, along with that love, teachers in the home who gradually learn how to play at an educational level. Just like teachers in preschool, the parents as teachers in the home presented play methods as opposed to just one-sidedly transmitting a secret play method.

부록

<부록 1> 연구(면접)참여 동의서

<부록 2> 가정연계 활동자료(가족 활동지) 예시자료

<부록 1> 연구(면접)참여 동의서

연구(면접)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동산유치원 원감 유**입니다. 저는 지금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유아교육 전공)에 재학 중입니다. 논문 주제로 동화책 및 도서 대여 활동을 중심으로 방과 후과정반의 가정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2015년 9월 7일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 도서를 활용하여 만 4세 방과후 과정반의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실험연구(그림책을 중심으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화책을 이용한 유치원과 가정 간의 다양한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해 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연구를 통해 나온 모든 결과는 익명으로 보관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만 4세 방과후 과정반 학부모님은 아래의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작성 후 동의서에 서명(학부모명)을 하시고 보내드린 봉투에 넣어 봉하여 주십시오.

<동의서>

날 짜 : 2015년 월 일

학부모 명 : _____

유 아 명 : _____

서명(sign) : _____







<부록 2> 가정연계 활동자료(가족 활동지) 예시자료

가정연계 활동자료(7)	가족과 함께 꽃감 만들기	10월 그림책 가을이 좋아 - 한미숙 -
	일시: 2015 . 11. 4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꽃감을 만들어 보았어요.
유치원에서 만들어 본 경험으로 집에서도 가족과 함께 만들어 보아요.

▶ 사랑반 친구들에게 꽃감 만드는 방법을 배워요

예시) 부모: 어떻게 해야 할까? 유아: 감의 꼭지만 남기고 껍질을 벗겨요 부모: 꼭지는 왜 남겨야 하는 거야?

		
1. 단단한 뽕감으로 골라 주세요	2. 감의 꼭지 꽃받침만 남기고 칼로 돌려 깎아요 (꽃받침을 잘라내면 안돼요)	3. 꽃감을 매달아 놓기 위해 클립 모양의 집게를 감꼭지 부분에 꽂아 주세요
		
4. 긴 대 끝에 고리를 넣어 매달아 주세요	5. 파리나 벌레가 오지 않게 망을 씌워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놓아요	6. 우리가 만들어 완성한 꽃감

▶ 우리 가족이 꽃감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붙여주세요, 사진을 찍은 후 출력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으로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유치원에서 출력하겠습니다).

▶ 가족과 함께 꽃감을 만들어 본 후 느낀 것을 적어주세요.

- 어린이

- 부모님

“동동이의 여행” 속 동동이는 어떤 느낌일까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구름빵을 만들어 보세요.

▶ 구름빵 만드는 방법



1. 구름빵 재료 준비



2. 빵에 생크림을 바른다.



3. 과일 빵에 과일, 견과류, 초콜릿 등을 올려 장식한다.



4. 빵으로 덮는다.



5. 준비한 다른 빵에도 생크림을 바른다.



6. 과일 빵에 초콜릿이나 과일, 견과류 등을 올린다.



7. 빵으로 덮는다.



8. 완성된 구름빵을 맛있게享用한다.

▶ 구름빵을 만들면서 가족 간에 나눈 대화를 기록해 주세요.

▶ 완성된 구름빵 요리를 사진으로 찍어 붙여주세요.
(출력이 힘든 가정에서는 찍은 사진을 전송해 주시면 유치원에서 프린트해서 붙이겠습니다).

가정연계 활동자료(II)	 가족과 함께 만드는 울동 영상	11월 그림책 동동이의 여행 - 그웬돌린 레송 -
------------------	---	--

가족과 함께 노래를 불러보고 울동을 만들어 보세요.

▶ 가족과 함께 노래를 불러 보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나누는 대화를 적어 주세요.



▶ 가족과 함께 노래에 맞는 울동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가족 중 노래를 울동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울동왕을 뽑고 함께 울동한 소감을 적어주세요.

(동영상 촬영 후 영상을 보내주시면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p>가정연계 활동자료(13)</p>	<p>가족과 함께 만드는 눈꽃송이</p>	<p>12월 그림책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주셨단다 - 리시 타운 버그런 -</p>
--------------------------	-----------------------------------	--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꽃송이를 만들어 집 안을 장식해 보세요.

▶ 가족과 함께 눈꽃을 만들어 보세요.

<p>준비물 : 가위, 풀 (또는 투명테이프), 스테인플러, 정사각형 종이 6장</p>	<p>① 종이를 삼각형으로 접어 세 선으로 자른다.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완전히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백을 남긴다.</p>	<p>② 가운데부터 동그랗게 말아서 붙인다.</p>	<p>③ 두 번째는 반대로 붙인다.</p>	
<p>④ 가위질 한 양쪽을 앞뒤로 번갈아 가며 동글게 붙인다.</p>	<p>⑤ 총 6개를 만들어서 이어갈 거예요~</p>	<p>⑥ 윗부분 3개, 아랫부분 3개를 한 번에 모아서 스테인플러로 찍어준다.</p>	<p>⑦ 각 부분이 만나는 곳도 찍어준다.</p>	<p>⑧ 사랑만 교실에 완성하여 붙여요. 금박이나 은박종이로 만들어서 모빌로 활용해도 좋습니다.</p>

▶ 눈꽃송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를 기록해 주세요.

▶ 아름다운 계절 겨울이 왔어요. 하얀 눈이 내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눈꽃송이를 만든 후 우리 집을 겨울 나라로 꾸며보세요.
가족과 함께 장식한 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사진 촬영 후 자료를 보내주시면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p>가정연계 활동자료(16)</p>	<p>가족 사진으로 만드는 그림책</p>	<p>12월 그림책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주셨단다 - 리사 타운 버그렌 -</p>
--------------------------	-----------------------------------	--

겨울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만의 그림책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그림책을 가정에서도 가족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그림책 예시 자료



▶ 가족 그림책 만들기

- ① 우리 집에 있는 그림책 중에서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고른다
(우리 가족의 인원수와 비슷한 등장인물의 그림책을 선정하는 것이 좋음).
- ② 가족과 함께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 나눈다.
-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는지, 어떤 등장인물이 되어 보고 싶은지...
- ③ 가족의 구성원이 그림책 등장인물의 역할을 나누어 정한다.
- ④ 가족의 사진을 그림책에 붙여 우리 가족만의 그림책을 완성한다.
- ⑤ 완성한 그림책을 가족과 함께 보며 소감을 나눈다.